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1905

2011年 8月
碩士學位 論文

九曲歌系 詩歌의 變移와 美意識 硏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宣 智 英

九曲歌系 詩歌의 變移와 美意識 硏究

Transition and Aesthetic Consciousness of Gugokgagye Siga(Poems and Songs)

2011年 8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宣 智 英

九曲歌系 詩歌의 變移와 美意識 硏究

指導敎授　金　正　柱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年 4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宣　智　英

선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 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주 인

2011년 5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目 次>

ABSTRACT

Ⅰ. 序論 ····· 1
1. 硏究 目的 ····· 1
2. 硏究史 및 方法 ····· 3

Ⅱ. 本論 ····· 10
1. 九曲歌系 詩歌의 樣相과 變移 ····· 10
1) 朝鮮 前期 九曲歌系 詩歌의 樣相 ····· 10
2) 朝鮮 後期 九曲歌系 詩歌의 變移 ····· 23

2. 九曲歌系 詩歌의 美意識 ····· 38
1) 因物起興의 寓興 ····· 38
2) 托物回億에 의한 寓意 ····· 44
3) 觀物求道의 聖域 ····· 51

3. 九曲歌系 詩歌의 文學史的 意義 ····· 58

Ⅲ. 結論 ····· 64

參考文獻 ····· 68

ABSTRACT

Transition and Aesthetic Consciousness of Gugokgagye Siga(Poems and Songs)

Sun, Ji-young
Advisor : Prof. Kim Jeong-J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16th century after Gugokgagye Siga(Poems and Songs) of the early Joseon period accepted <Mueegugok> by Chu Hsi of the 15th century, Confucianism was actively accepted by Sarim and more attention was paid to <Mueedoga> by Chu Hsi. Gugokgagye Siga of the early Joseon period definitely shows longing and admiration for Chu Hsi and the <Mueedoga> was recognized in terms of *Ipdochaje* and *Inmulkiheu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set and management of Gugok began from confucians' voluntary retirement who intended to realize Chu Hsi's life in their life.

However, in the late Joseon period, confucians left from external political conditions to set up Gugok. Such political situations influenced Gugokgagye Siga, resulting in weak longing and admiration for Chu Hsi. In particular, as movements to internally overcome limits of Confucianism appeared in the 17th century, such phenomenon was aggravated. In respect to formal aspects of Gugokgagye Siga, a 7-character quatrain was mainly written in the early Joseon period, but a 5-character quatrain was used, being accompanied by 7-character quatrain or 5-character quatrain. In addition, Gugoksiga with a style of sijo or gasa appeared, which was developed in various styles.

It is suggested that aesthetic consciousness of Gugoksiga was manifested into inspiration, expression of ones' ideas or feeling through objects or phenomena and a holy ground for seeking after truth by observing object.

After the mid-15th century, Gugokgagye Siga was extended to the 19th century

because it is assumed that poems were integrated with powerful forces and Confucianism. Meanwhile, in respect to aesthetic criticism on <Mueedoga>, Gobong Ki Dae-seung criticized it as seeking for pure, lofty and clean life and comfortable retirement and Yulgok Lee Ee criticized it as pursuing simple and poor living. As it was accepted as literary aesthetics and expanded, it was combined with Confucian thinking styles.

Ⅰ. 序論

1. 硏究 目的

중국 송(宋)나라 때에 역사의 새로운 담당자로 부상한 중소지주층(中小地主層) 출신의 학자와 관료들이 귀족 및 대지주 중심의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지양하면서 그 논거로써 유학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체계를 새로이 한 것이 바로 성리학이다. 이 학문의 요체는 곧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써 공도(公道)에 입각한 치인(治人)의 실현을 위해 성인의 경지를 모범으로 한 수기(修己)가 학문의 중심 과제였다. 그리고 治人이란 곧 치자(治者)의 사리(私利) 추구에 대한 배제를 뜻하는 것으로 특히 이 점을 강조하게 된 원인은 당나라 말엽 사회적 혼란과 그리고 뒤이어 五代의 이민족 침입 때에 한족이 무력했던 것은 대귀족들의 자기중심적인 私利 추구 정치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깊은 인식 때문이었다.

대개 위와 같은 성격의 성리학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엽이다. 고려 말엽은 중앙권력의 대귀족 세신거실(世臣居室)의 부패와 타락,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의 타락과 세속화, 원나라에 자주성을 상실한 왕실의 위상 등으로 인하여 당시의 정치현실은 향리층(鄕吏層)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신적 지주를 필요하게 하였다. 또한 부패하고 무능한 권문귀족을 제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天理의 법칙에 따른 철학이 필요하였고, 孔子와 孟子의 유학은 깊은 늪에 빠져있는 백성을 위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의 무상과 허무는 비현실적 세계만을 구가하여 정신적인 퇴락만을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성리학은 고려 말엽 신흥사대부들에게 구체제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써 정당성이 인정되어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급속히 확산됨과 아울러 성리학적 문학자를 낳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朱子의 성리학에 심취하여 정치와 학문적인 면에서 성리학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하여 朱子에 대한 흠모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였고, 朱子의 문학론은 거의 수정 없이 수용되어 조선의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무이도가(武夷櫂歌)>가 조선에 전해지면서부터 무이구곡의 이미지는 순식

간에 퍼져 사림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구곡의 이미지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직접 구곡원림을 경영하고, 구곡시가를 짓고, 구곡도를 그려서 감상하는 풍토가 널리 확산되었다. 그 중에서도 구곡가계 시가는 조선 중기와 후기에 걸쳐 창작이 더욱 고조되어 국문학사에 확고하게 자리하면서 다양하게 창작되어 진다. 구곡가계 시가문학은 대체로 한시 창작의 전통에서 볼 때 산수시·자연시·강호시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1], 1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사림파의 사대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17세기 중반 이후는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으로 세속적인 영달이나 정치현실에 대한 환멸 등을 비판한다거나 자신들의 결속을 위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선의 사림들에게 있어서 구곡가계 시가는 단순히 자연을 읊조린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朱子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미의식이 잘 투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연구는 조선조 사림들에 대한 정신세계의 탐색이자 학문의 근간이 되는 사상의 탐색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조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수용과 사적 전개 양상을 살펴서 구곡가계 시가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가 하는 통시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아울러 조선조 후기에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부분들을 고찰한 다음 구곡가계 시가의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특질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문학사적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趙志衡, 「17-18世紀 九曲歌 系列 詩歌文學의 展開 樣相」,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p.2.

2. 硏究史 및 硏究 方法

조선조 사림파를 중심으로 한 처사(處士) 문인들은 정치에서 이루지 못한 유교적 이상을 자연과의 융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여 강호가도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주자의 생활양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이도가(武夷櫂歌)>가 강호 생활적인 그들의 취향에도 맞았고 문이재도적(文以載道的) 문학관에 입각하여 주자학의 묘리(妙理)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2] 그리하여 경치가 좋은 곳에 정사(精舍)를 짓고 은거(隱居) 구도(求道)하여 朱子처럼 생활을 함으로써 유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했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구곡가계 시가는 이러한 사림 문학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곡가계 시가문학에 대한 연구는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에서부터 시작 되는데 초기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연구는 <高山九曲歌>가 단순히 朱子의 <무이도가(武夷櫂歌)>를 모방한 작품[3]이지만 <무이도가(武夷櫂歌)>는 독존(獨尊)에 치우친 수도가(修道歌)요, <高山九曲歌>는 수도(修道)에 있어서 학덕(學德)을 아울러 권장한 도학가(道學歌)라 할 수 있다[4]고 하여 단편적인 연구였다. 그러나 박요순(朴堯順)이 옥소(玉所) 권섭(權燮)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를[5], 장인진(張仁鎭)이 이중경(李重慶)의 <오대어부가구곡(梧臺漁父歌九曲)>을[6], 홍재휴(洪在烋)가 채헌(蔡憲)의 <석문정구곡가(石文亭九曲歌)>를[7], 류재영이 이도복(李道復)의 <이산구곡가(駬山九曲歌)>를[8] 발굴한 이후 많은 구곡가계 시가가 발굴되어 연구되어졌다.

그동안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武夷櫂歌>의 수용 및 양상에 관한 연구다.

이민홍은 『증보 사림파 문학의 연구』를 통해 16-17세기의 사림파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이도가(武夷櫂歌)> 10수가 결코 배제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퇴계

2)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p,37.
3)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史, 1960, p.271.
4) 黃鎭性, 「高山九曲歌硏究」, 『東岳語文論集』 1, 東國大學校, 1965, p.31.
5) 朴堯順, 「新發見 黃江九曲歌考」, 『朴晟義回甲論文集』, 1977.
6) 張仁鎭, 「새로 發掘된 李重慶의 梧臺漁父歌」, 『圖書館學』 10, 1981.
7) 洪在烋, 「石文亭題詠詩歌考」, 『曉星女大論文集』 23, 1981.
8) 류재영, 「駬山九曲歌에 대하여」, 『한실이상보박사회갑기념논총』, 한실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7.

(退溪), 하서(河西), 한강(寒岡), 곡운(谷雲) 등의 차운(次韻)과 더불어 이들이 비평한 武夷櫂歌> 평석(評釋)에 있다는 것이다. 하서(河西)를 중심으로 한 사림들은 학문입도차제(學問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로 <무이도가(武夷櫂歌)>를 수용했고, 퇴계(退溪)와 고봉(高峰)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사람들은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산수시로 수용했는데 <무이도가(武夷櫂歌)>라는 동일한 작품을 두고 그것을 수용하는 시각과 비평이 동일하지 않고 확연하게 상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며 이 두 견해는 <무이도가(武夷櫂歌)> 평석(評釋)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6-17세기 사림파 문학의 특징적 양상이라[9]고 규명하였다.

조성덕(趙成德)은 <무이도가(武夷櫂歌)> 수용 양상에 대하여 산수시적 수용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차구곡도가운(次九曲櫂歌韻)>,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의 <무이도가화운(武夷櫂歌和韻)>,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왕화무이구곡시운(仰和武夷九曲詩韻)> 등이 있는데 이들 작품은 조도적(造道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자연을 읊은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산수시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 조도시적(造道詩的) 수용으로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무이산부(武夷山賦)>·포저(浦渚) 조익(趙翼)의 <무이도가십수(武夷櫂歌十首解>·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의 <근보무이구곡시운(謹步武夷九曲詩韻)>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도가주해(櫂歌註解)』의 견해를 수용하였으나 작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도시적(造道詩的)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이도가(武夷櫂歌)>의 변용은 구곡경(九曲景) 설정의 유행과 구곡시(九曲詩) 화운(和韻)의 양산(養産)을 가져왔다[10]고 보았다.

조지형(趙志衡)은 구곡가계 시가의 전개 양상을 15-16세기는 주희에 대한 경모와 심리학적 심상공간을, 17-18세기는 현실 세계의 갈등과 체험적 서정을, 19세기는 탐승과 유락적 삶의 표현을 노래하였다[11]고 하여 내용적인 면에서 전개 양상을 살폈으나 작품의 내용을 이와 같이 시대별로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계보(系譜)의 연구다.

김문기(金文起)는 구곡계 시가의 유형은 한문 구곡시와 국문 구곡가로 나눌 수 있고, 한문 구곡시는 창작 구곡시와 한역 구곡시로 나누어지고, 창작 구곡시는 <武

9)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硏究』, 月印, 2000.
10) 趙成德, 「武夷櫂歌의 受容과 變容에 대한 일 고찰」, 成均館大學校 漢文學科 碩士論文, 2004.
11) 趙志衡, 「17-18世紀 九曲歌 系列 詩歌文學의 展開 樣相」, 高麗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碩士論文, 2008.

夷櫂歌>의 차운시의 형식으로 직접 경영하던 구곡원림을 노래한 원림(園林) 구곡가와 차운(次韻) 구곡시, 화운(和韻) 구곡시 등으로 나누어지며, 국문 구곡가는 시조체 구곡가와 가사체 구곡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系譜)는 영남학파의 구곡가계 시가와 기호학파의 구곡가계 시가로 분류할 수 있다[12]고 하였는데 조선조 전체 구곡가계 시가 작품의 전개 구도를 영남학파 사림과 기호학파 사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계보를 분류한다는 것은 시기별로나 작가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구곡가계 시가의 특질을 규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구곡가계 시가의 작품론에 관한 연구다.

구곡가계 시가 작품 가운데 지금도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의 시조에 대한 창작 배경, 구성, 작가 의식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많은 논의가 있고[13], 그 외의 작품으로 윤정화는 옥소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이를 통해 백부의 황강 은거의 정당성과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당대 예술의 새로운 흐름인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을 작품 창작에 도입하고 시정의 풍속에 관심을 둠으로써 작품의 소재나 내용이 더욱 다채롭게 형상화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조사적 의의가 크다[14]고 보았다. 이상원[15]과 장정수[16]는 17-18세기 구곡가계 시가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기사환국, 호락논쟁의 와중에서 정치적 배경이 <황강구곡가>를 창작하는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진정한 도통(道統)을 수립하고자 서인의 노론 계열을 중심으로 창작되었음을 밝혔다. 송재소는 이원조의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에 대하여 <무이도가(武夷櫂歌)>를 산수시가 아닌 조도시로 인식하여 쓴 작품으로 도에 뜻을 둔 초학자가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도의 극처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무이도가(武夷櫂歌)>의 원의(原意)를 충실히 반영했다[17]고 하였다. 그리고 이상주는 <화양구곡시(華陽九曲詩)>는 화양동의 절경을 표현한 것이지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모신 사당이 있는 곳으로 의리를 지

12) 金文起,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학회 , 1991.
13) 조태흠, 「高山九曲歌의 構造와 意味」, 『국어국문학』 4,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87.
김상진, 「高山九曲歌의 構造와 意味 考察」, 『한양어문연구』 제8집, 한양대학교한양어문연구회, 1990.
김병국, 「高山九曲歌 硏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4) 윤정화, 「玉所 權燮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지』35, 문창어문학회, 1998.
15) 이상원, 「道統歌와 黃江九曲歌 창작의 정치적 배경」,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 「조선후기 高山九曲歌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4, 고전문학연구회, 2003.
16) 장정수, 「黃江九曲歌의 창작 배경 및 구성 방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17) 宋載邵, 「凝窩 李源祚의 布川九曲次武夷櫂歌에 對하여」, 『죽부이지형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간행위원회』, 태학사, 1996.

키던 현장이라는 점과 숭명배청(崇明輩淸)의 의지로 북벌계획을 수립했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얼을 기리고 있는 작품[18]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김문기는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는 퇴계학파 유학자 12명에 의하여 13편이 창작되었으며 이 13편의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엽에 이르기까지 창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퇴계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19]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13편의 작품 가운데 제9곡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작품 연구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넷째,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문예 미학적인 연구다.

신두환은 조선 도학의 문예는 대부분 음영성정(吟詠性情)에 뜻을 둔 성리미학(性理美學)으로 이시정심(以詩正心), 인물기흥(因物起興), 즉경생정(卽景生情), 탁물우의(托物寓意) 등 성리학적인 형상사유와 외물인식은 성리미학의 사유체계이고, 성리미학(性理美學)의 품격은 충담소산(沖澹簫散), 한미청적(閒美淸適), 청신쇄락(淸新灑落), 물외한적(物外閒適) 등이며 이와 같은 미의식은 사장(詞章)과 부화(富華)를 일삼는 고려조와 조선조 전기 훈구파들의 문예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가는 성리학의 영향을 입어 담(淡)의 미의식을 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산수시가는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에 나타난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은둔의 정취와 성리학적 사유방식이 결합되어 창출되는 새로운 문예미학을 창출하였다[20]는 것이다.

이상 여러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볼 때 대부분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 수용 양상이나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개별 작품론 수준에 그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조 구곡가계 시가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겠다.

1. 구곡가계 시가의 양상과 변이에 대한 것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조의 구곡가계 시가를 전기 구곡가계 시가의 양상(樣相)과 후기 구곡가계 시가의 변이(變移)로 나누어서 전기 구곡가계 시가의 양상(樣相)에서는 전기의 <무이도가(武夷櫂歌)> 수용 양상에 대해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후기의 구곡가계 시가의 변이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곡가계 시가문학 작품의 대상은 아래 표에 제시된 작품들 가운데 각 시기별로 특징적이고 중요하다 생각되

18) 李相周, 「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 『교육과학연구』 제13집, 청주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99.
19) 金文基, 「陶山九曲詩의 作品 현황과 創作 경향」, 『퇴계학과한국문화』 45, 경북대학교퇴계학연구소, 2009.
20) 신두환, 「朝鮮 士人의 武夷櫂歌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대동한문학』, 대동한문학회, 2007.

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作　家	題　目	形式	收錄文獻	備考
朴河淡 (1479-1560)	雲門九曲歌	漢詩	逍遙堂先生逸稿	
李滉 (1501-1570)	閒居讀武夷志次九曲櫂歌韻	漢詩	退溪集	
金麟厚 (1510-1560)	武夷山賦	漢詩	河西全集	
李珥 (1536-1584)	高山九曲歌	時調	甁窩歌曲集	
鄭逑 (1543-1620)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漢詩	寒岡集	
趙憲 (1544-1592)	遊栗原次武夷櫂歌韻	漢詩	重峯集	
李弘有 (1588-1671)	敬次樂愚堂九曲韻	漢詩	遯軒集	
李重慶 (1599-1678)	梧臺漁父歌九曲	時調	壽軒先生文集	
老論人士	孤山九曲詩	漢詩	栗谷全書	
宋時烈 (1607-1689)	華陽九曲	漢詩	玉所藏杏	
金壽增 (1624-1701)	谷雲九曲次晦翁武夷櫂歌韻	漢詩	谷雲別集	
李衡祥 (1653-1733)	次晦菴武夷九曲	漢詩	甁窩集	
尹鳳九 (1681-1767)	伽倻九曲次武夷九曲韻	漢詩	屛溪集	
權燮 (1671-1759)	黃江九曲歌	時調	玉所藏杏	
權震應 (1711-1775)	華陽九曲和武夷櫂歌十首	漢詩	華陽誌	
蔡濾 (1715-1775)	石門亭九曲櫂歌	漢詩	石門亭集	
朴胤源 (1734-1799)	題華陽九曲	漢詩	近齋集	
鄭宗魯 (1738-1816)	雲仙九曲詩	漢詩	立齋集	

李家淳 (1768-1844)	敬次朱子武夷九曲韻	漢詩	霞溪文集	
洪敬謨 (1774-1851)	牛耳九曲歌	漢詩	外史前篇	
李漢膺 (1778-1864)	敬次武夷櫂歌	漢詩	敬菴先生文集	
李源祚 (1792-1871)	布川九曲次武夷櫂歌	漢詩	凝窩先生文集	
宋達洙 (1808-1858)	華陽九曲次武夷櫂歌韻	漢詩	水宗齋集	
盧性度 (1819-1893)	烟霞九曲歌	漢詩	選集要訣	
柳重教 (1832-1893)	玉溪操	歌辭	省齋集	
李道復 (1862-1938)	駢山九曲歌	歌辭	厚山文集	

2. 구곡가계 시가의 미의식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조선조의 사림들은 강호 유람, 자연 완상, 경승지 유람 등 탐승과 유람의 자체가 일상이면서 시작(詩作) 기반의 원리로 작용하여 자연을 주 소재로 하는 구곡가계 시가를 창작했지만 그 형상화 과정에서는 규범적이고 이념적인 미를 중시하지 않고 개인적 흥취와 미감을 읊은 시가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징후들이나 성리학적 세계관을 견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다른 의식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재도적인 미의식은 사대부층의 상상력이나 문학적 표현에 제약을 가하는 폐쇄적 성격을 지닌다면 유미적인 미의식은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개방적 성격을 지닌다.[21] 이러한 미의식은 대립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보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우흥(寓興), 탁물회억(托物回憶)에 의한 우의(寓意), 관물구도(觀物求道)의 성역(聖域)으로 분류하여 구곡가계 시가의 미의식을 살펴보려 한다.

3.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구곡가계 시가문학은 15세기 <무이도가>의 수용에서 비롯하여 16세기를 지나 17세기를 거쳐 18세기와 19세기까지 파급되면서 우리의 문학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21) 崔相殷,「朝鮮前期 士大夫 歌辭의 美意識」,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科 博士學位論文, 1991, p.3.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II. 本論

1. 九曲歌系 詩歌의 樣相과 變移

1) 朝鮮 前期 九曲歌系 詩歌의 樣相

구곡가계 시가의 연원은 주희 (1130-1200)가 말년에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은거와 구도생활을 하면서 지은 <무이도가(武夷櫂歌)>에서 비롯된다. <무이도가(武夷櫂歌)>는 중국 복건성 숭안현에 위치한 무이산의 구곡계(九曲溪)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이산의 지명 유래는 옛날 이 산에 신인(神人) 무이군(武夷君)이 살았다 하여 무이산이라 했다고 한다. 강서성과 복건성의 경계에 걸쳐 있는 이 산은 진(秦)·한(漢) 이래로 도가(道家)·선승(禪僧)·명사(名士)들이 심성을 수양하고 도학을 닦았던 곳이다.

> 옛날 어진 大儒가 여기에 숨어서 도를 닦았고, 眞人 鍊士가 여기에서 蛻骨했다. 예나 지금이나 達公, 鉅卿, 文人, 騷客, 名僧, 高道, 逸人, 遷客들의 무리가 이 산을 지나면서 시를 읊고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여 가슴에 쌓였던 감회를 씻어 냈다.[22]

무이산은 36봉(峰)과 37암(巖)으로 된 아름다운 경관이 120리에 걸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도류(道流)들이 태골(蛻骨)의 장소로 선택했고, 승려들도 수도를 하였으며, 시인 묵객들이 창작을 하였으리라 본다. 그리고 다양한 전설과 고사가 점철된 곳이기도 하는데 특히 요임금의 신하로 은나라 말년까지 팔백년을 살았다는 신선 팽조를 위시한 많은 선인들이 수련하여 승천한 곳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 최초로 팽조가 살았고, 후에 황태모와 13진군과 공·장·엽 등의 3선이 여기에서 수련하여 승천하였다. 이는 산의 신령스러움이 길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23]

---

22) 董天工,『武夷山志』, 卷二十一, 武夷詩集序
前賢大儒藏修於此 眞人鍊士蛻骨於此 今昔達公鉅卿文人騷客名僧高道逸人遷客之流 過玆山者 莫不發爲題詠 摸寫其勝 以泄胸中之所素蓄

23) 董天工,『武夷山志』, 卷之二十一, 武夷紀要
始爲彭祖所居後 則皇太姥十三眞君 孔莊葉三仙 皆修鍊於此而得飛昇 豈非山之靈爲之孕毓乎

주자는 54세 때인 1183년 4월에 무이산 제오곡(第五曲)에 무이정사를 짓고 강학(講學)과 은거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정사(精舍)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무이산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홉 구비를 이루는데 그 중에 제5곡이 제일 깊숙하다. --<중략>--냇물 양쪽의 붉은 언덕과 푸른 절벽은 수풀이 둘러싸고 귀신이 깎은 듯하여, 그 형상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좌우를 돌아다보면 놀라운 경치가 끝없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평평하고 긴 등성이와 푸른 넝쿨과 무성한 나무들이 뒤엉키고 칡넝쿨이 뒤덮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눈을 확 트이게 하고 그윽이 깊게 하여 더할 수 없는 극치를 이루는 곳이 나타나니 바로 이곳이 정사가 있는 곳이다. [24]

이와 같은 무이정사 주위의 아름다운 절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자는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을 짓고. 또 55세 때인 1184년에는 무이산 아홉 구비의 절경, 즉 제1곡 심진동, 제2곡 옥녀봉, 제3곡 선기암, 제4곡 금계암, 제5곡 철적정, 제6곡 선장봉, 제7곡 석당사, 제8곡 고루암, 제9곡 신촌시 등을 소재로 읊은 <武夷櫂歌>[25]

---

24) 朱熹,『朱文公文集』卷九, 詩, 武夷精舍雜詠幷序, 臺灣商務印書館, 1980, 上冊 p.86.
武夷之溪 東流 凡九曲 而第五曲爲最深 --<中略>-- 溪流兩旁 丹崖翠壁 林立環擁 神剜鬼刻 不可名狀 舟行上下者 方左右顧瞻 錯愕之不暇 而忽得平罔長阜 蒼藤茂木 按行迤靡 膠葛蒙翳 使人心目 曠然以舒 窈然以深 若不可極者 卽精舍之所在地

25)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위에는 仙靈이 어리어 있고
山下寒流曲曲淸 산 아래 차가운 시내는 굽이굽이 맑도다
欲識箇中奇絶處 그 중에 빼어난 곳 찾노라 하니
櫂歌閑聽兩三聲 뱃노래 두 세 곡조 한가롭게 들려만 오네

一曲溪邊上釣船 첫 구비 시냇가에서 낚싯배에 오르니
幔亭峰影蘸晴川 만정봉의 그림자가 맑은 내에 어려있네
虹橋一斷無消息 홍교는 끊어진 채 소식이 없고
萬壑千巖鎖翠煙 골짜기 바위마다 안개만이 자욱하다

二曲亭亭玉女峰 둘째 구비에 우뚝 솟은 옥녀봉
插花臨水爲誰容 꽃을 꽂고 물가에 임했으니 누구를 위한 단장이냐
道人不復陽臺夢 도인은 다시 양대의 꿈을 꿈꾸지 않으니
興入前山翠幾重 흥겨워 앞산으로 드니 푸르럼은 몇 겹이냐

三曲君看架壑船 셋째 구비에 그대가 본 가학선
不知停櫂幾何年 삿대질 멈춘 지 몇 해나 되었던고
桑田海水今如許 뽕밭이 바다가 됨도 이와 같으니
泡沫風燈敢自憐 물거품과 등불을 감히 슬퍼할 것인가

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이를 모방하여 각종 정사를 짓고 구곡을 경영하면서 읊은 구곡가계 시가의 기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이도가(武夷櫂歌)>가 언제 전래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려 말 중앙 귀족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의 타락과 세속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안향(安珦 1243-1306)에 의해 성리학이 도입 되고, 그 영향으로 문물제도와 사회 전반에 걸쳐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안향은 충렬왕 15년(1289)에 충선왕이 원나라에 행차함으로 종행(從行)하여 약 4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듬해인 1290년에 돌아오는데 이 때 『주자전서(朱子全書)』를 가져왔고. <무이도가(武夷櫂歌)>도 이 무렵에 전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 말엽 원천석(元天錫)의 『운곡시사(雲谷詩史)』에 조식(李植)의 <칠보서원제영시(七峰書院題詠詩)>가 있는데 그 시 가운데 마지막 구에 '의연구곡무이중(依然

四曲東西兩石巖 넷째 구비 동서로 치솟은 바위에는
巖花垂露碧孳毓 巖花가 울긋불긋 어지러이 피어 있고
金鷄叫罷無人見 금계 울음소리 그쳐도 인적은 없는데
月滿空山水滿潭 공산에는 달빛이 가득 연못엔 물이 가득

五曲山高雲氣深 다섯째 구비의 산은 높고 구름기운 짙은데
長時煙雨暗平林 오랜 기간의 안개비에 수풀이 어둡구나
林間有客無人識 숲 속의 나그네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欸乃聲中萬古心 어기여차 뱃노래에 만고심이 어렸도다

六曲蒼屛繞碧灣 여섯째 구비 높은 벼랑은 푸른 강물에 둘려있고
茅茨終日掩柴關 띠집은 종일토록 사립문이 닫혀있네
客來倚櫂岩花落 객이 와 삿대를 의지하니 바위의 꽃 떨어질 뿐
猿鳥不驚春意閒 원숭이와 새는 놀라지도 않고 봄뜻만 한가롭다

七曲移船上碧灘 일곱에서 배를 저어 푸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隱屛仙掌更回看 은병과 선장바위를 또다시 돌아보았네
却憐昨夜峰頭雨 어젯밤 산봉우리에 서글픈 비가 내렸으니
添得飛泉幾道寒 쏟아지는 물줄기는 얼마나 차갑겠는가.

八曲風煙勢欲開 여덟의 안개가 바람에 열리려하고
蔲樓岩下水瀠洄 고루암 아래의 물결은 굽이쳐 돌아가네
莫言此處無佳景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가 없다고 말하지 마소.
自是遊人不上來 이 때문에 遊人 오지 않을까 두렵네

九曲將窮眼豁然 아홉 구비 다하니 시야가 환하게 트이고
桑麻雨露見平川 뽕나무와 삼이 우로에 젖어 시내처럼 보인다
漁郎更覓桃源路 어부들은 다시 도원으로 가는 길을 다시 찾지만
除是人間別有天 이곳 말고 인간 세상에 별천지가 있나.

九曲武夷中)'[26]이라는 詩句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엽에 <무이도가(武夷櫂歌)>가 전래되었다고 본다. 조선조의 초기에는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27]과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 1418-1456)[28] 및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1420-1488)[29], 그리고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30] 등의 시가 기록

---

26)『高麗名賢集』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0, p.348.

27) `陽村集』卷八, <次趙雨亭韻答鄭春谷>, 韓國文集叢刊 7, p.97.
武夷山繞晦菴亭 무이산이 회암정을 둘러 있어서
百畝方塘徹底淸 백묘의 네모난 연못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구나
活水至今流不息 활수가 지금도 흘러오지만
難分一派洗塵情 한 가닥 물줄기 갈라내어 세속의 정을 씻긴 어렵네

28)『成謹甫集』卷一, <次武溪酬唱詩韻 五首>, 韓國文集叢刊 10, p.189.
曲曲淸溪面面山 굽이굽이 맑은 시내요 면면이 산이니
武夷爭似武溪間 무이산은 어쩜 그리도 무계간과 같은지
早從獨立聞詩禮 일찍부터 홀로 자립하여 시와 예를 배웠나
今始閑居樂孔顔 지금에야 비로소 한가로이 거처하며 공자와 안회를 좋아하네

29)『四佳集』卷四 詩, <朱文公武夷精舍圖 用文公韻>, 韓國文集叢刊 10, p.279-280.
精舍
已矣世無知 그만이로다 세상에 알아줄 이 없어
來作山中客 와서 산중의 나그네가 되었더니
經史足餘暇 경사 읽는 이외에 여가도 넉넉해
優游一泉石 한 산수 사이에 유유자적하노라
止宿寮
有客款山扉 나그네 있어 산 사립을 찾아와
雲深一茅宇 구름 깊은 한 띳집에 이르자
靑燈話今古 등불 켜고 고금을 담론하노라니
新炊間黃黍 노란 기장 섞인 밥을 새로 지었네
觀善齋
從容函丈間 조용한 함장의 사이에 있어서
摳衣爭避席 옷자락 추어올려 서로 자리 피하네
聖賢可同歸 성현의 지위로 돌아갈 수 있나니
思齊常勉力 같기를 생각해 항상 힘쓸지어다
石門塢
世路一何嶮 세상길은 어찌 그리도 험난하며
山門一何深 산문은 어찌 그리도 깊숙하던고
朝昏閉石門 아침저녁으로 석문을 굳게 닫아
爲扃名利心 위하여 명리 좇는 마음을 막노라
寒栖館
斗室生虛白 조그만 방에 밝은 빛 생기어라
道味知有力 도의 맛을 아는 데에 힘이 되도다
澹然何所求 담박하여라 그 무엇을 구하리요
掛冠倚空壁 사직하고 텅 빈 벽에 기대 앉았네
鐵笛亭
昔人橫鐵笛 옛사람이 철적 비껴들고 불었으니
崖斷山雲開 끊어진 절벽 산 구름 걷힌 곳이로다
千秋有遺響 천추만세에 남긴 음향 전하여라
感慨從中來 감개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네

에 전하는데 권근(權近)의 시는 무이산에 있는 회암정을 노래했고, 성삼문(成三問)은 무이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도를 갈구하는 마음을, 김종직(金宗直)은 무이산의 신선 설화를 배경으로 시를 지었으나 서거정(徐居正)은 주자(朱子)의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12수의 운을 차운(次韻)하여 무이구곡에서 생활하던 주자의 옛 모습을 상상해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시기에는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를 하나의 시작품으로 인식하였을 뿐 실제로 구곡원림을 경영하고 구곡시를 짓고 구곡도를 그리지는 않았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16세기에 이르러 성리학이 지배사상으로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어[31]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15세기 무렵에 벌써 <무이도가(武夷櫂歌)>가 널리 확산되어 문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집권층의 권귀화(權貴化) 추세가 현저해지면서 관료 전반이 관권을 통한 수탈이 심하게 자행되자 이에 대해 비판세력으

釣磯
一竿坐魚磯 한 낚대 손에 쥐고 낚시터에 앉아
無言瞰泓碧 말없이 깊은 물을 굽어보노라니
隔岸名利人 언덕 너머 명리 좇는 사람들과는
看竿不相識 어느덧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었네
隱求齋
古齋夜氣明 높다란 서재엔 야기도 청명하여라
唯聞靈籟響 오직 영뢰 소리만 들릴 뿐이로다
誰知隱几心 안석 기대던 마음을 그 누가 아꼬
君子道不長 군자의 도가 안자라기 때문일세
茶竈
一葦縱所之 한 거룻배 가는 대로 내버려두니
泛泛隨風輕 둥둥 떠서 바람 따라 경쾌도 해라
乾坤俯仰間 우러르고 굽어보는 천지 사이에
一谷滄浪聲 한 곡조 창랑가 소리뿐 이로구나
漁艇
一葦縱所之 한 거룻배 가는 대로 내버려두니
泛泛隨風輕 둥둥 떠서 바람 따라 경쾌도 해라
乾坤俯仰間 우러르고 굽어보는 천지 사이에
一曲滄浪聲 한 곡조 창랑가 소리뿐이로다
寄蔡子休
紅日鉤簾影半斜 붉은 햇살 그림자는 주렴에 반쯤 비끼었고
晩鶯啼處柳陰多 석양 꾀꼬리 우는 곳에 버들 그늘은 짙은데
玉堂睡起無人到 옥당에서 자고 깨니 아무도 찾아온 이 없어
一半春愁屬杏花 절반의 봄 시름을 살구꽃 향기에 부치노라

30) 『佔畢齋集』, <送克己遊馬川>, 韓國文集叢刊 12, p.274.
歲月不饒句漏令 세월은 (장수를 갈망했던) 구루령을 돌바주지 않아
笙簫空想武夷仙 피리소리에 공연히 무이산의 신선만 생각나네.
煩君問訊山中叟 그대에게 당부하거니 산중 노인에게 물어보소
有幾追胥苦索錢 (졸도들이) 얼마나 모질게 돈을 요구했는지

31) 김문기, 『聞慶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한국학술정보, 2005, p.38.

로 등장한 것이 사림파였다. 이들의 등장으로 정치 권력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도학을 숭상하고 실천하는 지식인들은 주자의 문학론과 주자의 시를 전범(典範)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도학적 문학론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표본적 작품인 <무이도가(武夷櫂歌)>가 국문학사에서 전면으로 부각하게 된다. 사림파들은 15세기 후반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등장이 곧바로 성리학적 질서의 확립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 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에도 정치의 주도권은 여전히 훈구파와 척신 계열에 있었다. 사림파는 때로 짧은 기간 주도적 위치에 서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공도론(公道論)에 입각한 비판에 몰린 훈(勳)·척(戚) 계열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받기 일쑤였으니, 이 시기에 있는 네 차례의 사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화가 원인이 되어 15세기 말엽부터 전원에 은거하면서 사림들에 의해 <무이도가(武夷櫂歌)>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진다. 그 후 성리학이 절정에 달하자 주자의 무이산 구곡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과 그가 지은 <武夷櫂歌>는 사림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무이산을 소재로 한 詩文이 수록된 『무이산지(武夷山志)』를 탐독했다는 것도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나의 벗 이중구가 요사이 그림 하나를 보내 왔는데, 온 눈에 가득한 운연(雲煙)이 정묘하고도 곡진해서 마치 귓가에서 도가(櫂歌)가 들리는 듯하였다. 아, 나와 나의 벗만이 그 시대를 함께 하지 못하여 만정봉 밑에서 배를 마련하여 타고 석문오 앞에서 노를 멈추고 인지당에 올라가 날마다 (주자를) 모시고 도를 강하며 여가에 물러가 여러 문인들과 함께 은구재(隱求齋)와 관선재(觀善齋)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오가며 도를 만에 하나라도 깨우치기를 이루지 못했다. 이군이 나를 맞이해서 각 굽이 위에 도가(櫂歌)를 쓰고 다 쓰자 인하여 권말에 느낀 바를 기록하고 돌아갔다.[32]

이 글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그의 친구인 이중구(李仲久)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이중구가장무이구곡도(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 <이

32) 『退溪集』,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 韓國文集叢刊 30, p.467.
吾友李君仲久 近寄一本來 滿目雲烟 精妙曲盡 耳邊恍若聞櫂歌矣 噫 吾與吾友 獨不得同其時買舟幔亭峯 下輟棹於石門塢前 獲躋仁智堂 日侍講道之餘 退而與諸門人 詠歌周旋於隱求觀善之間 以庶幾萬一也 李君要余書櫂歌於逐曲之上 旣書 因識所感於卷末而歸之 嘉靖甲子二月初吉 眞城李滉 謹跋
吾友李君仲久 近寄一本來 滿目雲烟 精妙曲盡 耳邊恍若聞櫂歌矣 噫 吾與吾友 獨不得同其時 買舟幔亭峯下 輟棹於石門塢前 獲躋仁智堂 日侍講道之餘 退而與諸門人 詠歌周旋於隱求觀善之間 以庶幾萬一也 李君要余 書櫂歌於逐曲之上 旣書 因識所感於卷末而歸之

중구가장무이구곡도(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에 쓴 발문이다. 내용을 보면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를 이황이 자세하게 보면서 너무나도 정묘하고 곡진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 이중구(李仲久)가 朱子)와 함께 무이구곡 일대를 돌아보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달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였던 것이다. 李滉은 자신의 친구와 각 굽이 위에 도가(櫂歌)를 쓰고 마지막으로 발문을 쓴 것으로 보아 조선조 전기는 <武夷九曲圖>를 감상하고 <武夷櫂歌>를 읊조리며 朱子의 은거생활을 연상하고 이를 통해 朱子처럼 도를 깨우치기를 바라는 것이 당시 사림의 <武夷九曲圖>와 <武夷櫂歌> 향유의 한 유형이었으며[33] 이를 통해 주자와 무이산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특히 주자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주자서(朱子書)와 주자의 전저서(全著書)를 합친 『朱子大全』의 전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주자를 흠모하는 동시에 주자의 행적에 대한 모방으로 이어지고, 그 모방은 <武夷櫂歌>을 차운한 시가와 우리나라 산수에 구곡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명승지에 구곡을 정하고 정사를 세워 구곡가계 시가를 짓게 된다.

구곡원림과 구곡가계 시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채지당(採芝堂) 박귀원(朴龜元 1442-1506)의 고사구곡 원림이 최초의 구곡원림이고, 그가 지은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가 최초의 구곡가계 시가다.[34] 다음으로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이 58세 때인 1536(중종 31년)년에 경상북도 청도의 동쪽에 있는 운문산(雲門山)을 비롯한 동창천(東倉川)일대 구곡의 산수미와 절경에 대해 朱子의 <武夷櫂歌>를 차운하여 지은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이다.

박하담(朴河淡)은 조부 대에 밀양에서 청도로 옮긴 이후 사림으로 살면서 청도의 객관(客館) 신축을 기념한 <도주객관상량문(道州客館上樑文)>에서는 고을의 풍속이 선량해 지고 인재가 모여들기를 바랬으며, <향로당상량문(鄕老堂上樑文)>에서는 향중의 풍속이 아름다워 지고 충신 효자가 배출되기를 기원하는 등 향촌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향촌에 살면서 박하담(朴河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

33) 趙志衡, 「17-18世紀 九曲歌 系列 詩歌文學의 展開樣相」, 高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碩士學位論文, 2008, p.18.

34) 金文基, 「陶山九曲詩의 作品 현황과 創作 경향」, 『퇴계학과 한국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p.222.

게 인식했던 것은 마음의 수양이었다. 사림들이 출사를 단념하면서 수신(修身)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중시한 것은 당시의 정치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들이 마음을 바로잡아 사림의 본분을 찾아 나가려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박하담(朴河淡)을 북송 시대의 성리학자인 장횡거(張橫渠)·소강절(邵康節)에 비유하기[35]도 한다. 하지만 사화(祀禍)로 인하여 박하담(朴河淡)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무오사화 때 그의 나이가 20세였는데 <문사사화기척연구호(聞士禍起惕然口號)>[36]의 시에 보면 "첨오한세초연면(瞻烏漢世超然免) 아위도반역족현(我謂屠蟠亦足賢)", 즉 어지러운 한나라 세상에 초연히 재앙을 면하니 나는 신도반(申屠蟠)이 또한 족히 현명하다 말하리라고 하여 김종직(金宗直)이 부관참시를 당하고 김일손(金馹孫)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보고 후한 말엽 은자였던 신도반(申屠蟠)이 당고(黨錮)의 화를 피해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대장군 하진(何進)과 동탁(董卓) 등의 초빙을 물리치고 절조를 지키면서 여생을 마친 현명한 체세를 생각하며 박하담(朴河淡)도 벼슬길을 단념하고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택했던 것이다. 기묘사화 이후 출사를 단념하고 운문산에 은거해있던 그는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 때에도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고 있던 그의 절친한 벗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1479-1551)와 함께 청도 운문산에 은거하고 있던 경재(警齋) 곽순(郭珣 1502-1545)이 희생되자 박하담(朴河淡)은 그의 사망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화의 충격으로 출사를 단념하고 그는 청도의 운문산을 근거지로 은거하여 살면서 마음속의 티끌을 깨끗이 씻으려 한다.

三曲橫坡等藕船　삼곡의 빗긴 언덕은 신선배 모양이고
仙遊物外晝如年　신선처럼 물외에 노니니 일 년이 하루네
腸間五累今消盡　마음 속 다섯 근심 이제야 씻어내니
寶鑑明明我最憐　거울처럼 밝은 마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네

이처럼 박하담(朴河淡)은 당시의 정치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출사를 단념하며 향촌에 은거해 살면서 자신이 명덕을 회복하여 맑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자 운문산에 은거하게 된다. 그리하여 운문천 일대에 운문구곡을 설정하고 그 곳의

35)『逍遙堂逸稿』附錄 言行拾遺
先生平生精力 似張橫渠 晩年安樂 似邵康節
36)『逍遙堂逸稿』卷1 詩 聞士禍起惕然口號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된다.

九曲山窮水瑩然　구곡이라 산은 다하는데 물이 맑으니
游鱗潑潑躍平川　노는 고기 발발히 평천을 뛰어 오른다
漁舟此日桃源覓　고깃배는 이 날도 도원을 찾지만
別有雲門一洞天　달리 운문에 한 동천이 있어라

위의 시는 운문구곡의 마지막 平川을 노래한 것이다. 平川은 평평하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간을 의미한 것이다. 이곳은 운문산이 끝나는 지점이다. 운문구곡이 다하는 지점에서 특히 화자는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별천지가 운문의 동천에 있는데 왜 고깃배는 이날도 도원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운문의 동천 경치를 극찬하고 있다. 박하담(朴河淡)은 이처럼 운문구곡에서 소요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은 <한거독무이지차구곡도가운십수(閒居讀武夷志次九曲櫂歌韻十首)>를 지었는데 朱子의 <武夷櫂歌>를 차운(次韻)한 10수의 차운시(次韻詩)다. 동방의 朱子로 칭송되는 퇴계(退溪)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영남학파의 구곡경영과 구곡가계 시가 창작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퇴계(退溪)는 도산구곡을 경영한 것 같으나 고산구곡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高山九曲歌>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무렵에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도 <武夷櫂歌>를 의방한 <高山九曲歌>를 지었는데 한시가 아닌 시조로 지은 것이 특징이다. 국문시가인 시조로 지은 것은 개인적인 흥취의 발현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은병정사에서 모범적인 노래의 전형을 제시하여 詩歌 향유의 방향을 선도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된다.

> 두 번째는 몸을 단속함이니 배우는 자가 한 번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나서는 반드시 구습을 씻어버리고 오로지 배움을 향하여 몸가짐과 행동을 다잡아야 한다.…<중략>…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 바 예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천리에 어긋나면 이는 곧 예가 아니다. 그 대략의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창우의 부정한 색과 음란한 속악의 소리와 비루하고 오만한 놀이와 유련황란의 잔치는 더욱 금해야 한다.[37]

이처럼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바로 학문에 뜻을 둔 자로서 학도들이 수기(修己)를 위해 엄수해야할 수칙으로 창우(倡優)의 부정지색(不正之色)과 속악(俗樂)의 음미지성(淫靡之聲), 즉 음란 한 속악(俗樂)과 성기(聲妓)의 금지를 중시했다. 그런데 한시는 아무리 훌륭해도 성정을 함양하는 점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장애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동을 주기 어려웠다고 본다.

>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영은 할 수 있어도 노래 부를 수는 없다. 만약에 노래 부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말로 노래를 지어야 하니 대개 우리나라의 음절로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38]

위와 같이 우리말로 노래해야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문시가인 시조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국문시가가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게 된[39]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퇴계를 비롯한 많은 사림들은 한시로 화운(和韻)하였는데 율곡(栗谷)은 시조라는 우리 고유의 가곡양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탁월한 시도였다고 본다.

9거유(巨儒)였다. 그가 살던 시기는 사림파와 훈구파간의 정치적·사상적 갈등이 치열했던 혼란기였다. 당시에 사림파들이 주창했던 내용은 성리학이었고, 이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면서 사림파의 문예의식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학이론으로 발전하여 갔다. 특히 중종(中宗) 시대에 이르러서는 문인들의 활동이 차차 활발해지고 한시문학 또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여 이후 시단은 성황을 이루게 된다.

김인후(金麟厚)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도학·절의·문장에 힘쓰면서 많은 한시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 <무이산부(武夷山賦)>는 하서(河西)가 朱子의 <武夷櫂歌>를 조도시(造道詩)로 파악하고 지은 것이다. 그리고 <서무이구곡후(書武夷九曲後)>에 보면 朱子의 <武夷櫂歌>에 대해 해구곡(解九曲)까지 쓰지 않고 해삼곡(解三曲)

---

37)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44, p.331.
二曰撿身 爲學者旣立聖之志 則必須洗滌舊習 一意向學 檢束身行…<中略>…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所謂非禮者 稍違天理 則便是非禮 如以粗處言之 則倡優不正之色 俗樂淫靡之聲 鄙褻傲慢之戱 流連荒亂之宴 尤宜禁色

38) 『退溪全書』, 韓國文集叢刊 30, p.468.
今之詩 異於古人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39) 吉鎭淑, 「조선전기 禮樂論의 추이와 國文詩歌論 정립양상」,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48.

까지만 썼다. 왜 解三曲으로 그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건대 <武夷櫂歌> 구곡 가운데 解三曲을 통해 道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만을 알게 되면 나머지 입도차제(入道次第)에 대한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道喪千年聖路湮 도가 없어진 지 천 년이 되어 성로가 막혔으니
中天白日晦精神 중천에 떠있는 빛난 해도 정신을 감추었네
煙光幸帶斜陽照 연광은 다행이도 사양을 띠고 있으니
霽月東來意更新 제월이 동산에 떠오르니 뜻이 다시 새롭구나[40]

위의 시는 <서무이구곡후(書武夷九曲後)>의 해일곡(解一曲)이다. 그러므로 朱子의 <武夷櫂歌> 일곡(一曲)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武夷櫂歌>에 있는 詩語는 하나도 없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朱子의 <武夷櫂歌> 일곡(一曲)의 3구에서 '홍교 한번 끊어지자 소식 없으니'에서 '끊어진 홍교'를 도통(道統)이 끊어진 것에 대한 개탄으로 해석하고, 4구의 '만학천봉이 푸른 내에 잠겼네'는 도학이 침체된 것으로 해석하여 이 두 구를 통합하여 <서무이구곡후(書武夷九曲後)>에서는 '도가 없어진지 천 년이 되어 성로(聖路)가 막혔으니'라고 표현하였다. 하서(河西)가 말한 천 년이라는 것은 孟子가 서거한 후부터 朱子가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 것[41]이다. 이러한 해석은 도학파의 한 사람으로 이도위문(以道爲文)의 제도적 문학관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이처럼 문학을 도학에 존속시켰기 때문에 문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이 가지는 본질적인 정서와 쾌락을 부정하고 도덕적 교훈성만을 강조하는 효용론에 빠져 문학의 본질을 왜곡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는 <앙화주자무이구곡시운십수(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를 지은 사람으로 영남 유학의 태두(泰斗)인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남명(南冥) 조식(曺植)의 문인이었다. 퇴계(退溪)는 영남 좌도의 중심지인 안동(安東)에서, 남명(南冥)은 영남 우도의 중심지인 진주(晉州)에서 각각 학문을 하고 있었는데 양현의 학문을 집대성한 인물로서 심학(心學)과 예학(禮學)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영남학파(嶺南學派)의 맥을 잇고, 그것을 미수(眉叟) 허목(許穆)에게 전함으로써 근기학파(近畿學派) 형성의 연원이 되게 하였던 사람이다. 미수(眉叟) 허목(許

40) 『河書集』 卷六 詩, 吟示景范 仲明, 韓國文集叢刊 33, p.123.
41)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硏究』, 月印, 2000, p.376.

穆)은 근기출신으로 그가 영남의 학에 접한 것은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스승으로 섬기면서부터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친의 임지를 따라 영남의 여러 고을을 왕래하면서 한강(寒岡)의 학덕을 존경하여 23세 때에 성주(星州)로 가서 한강(寒岡)을 만났고, 그리하여 후일 한강의 학통을 근기지방으로 가져가서 근기학파(近畿學派)의 개산비조(開山鼻祖)가 되었던 것[42]이다.

무흘구곡(武屹九曲)은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은거했던 경상북도 성주(星州)의 무흘을 중심으로 대가천(大伽川)에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그는 대가천 비봉암에서부터 수도산 만월담 용추에 이르기까지 소위 무흘구곡을 탐승하고 朱子의 <武夷櫂歌>를 차운(次韻)하여 화운(和韻) 九曲詩 <앙화주자무이구곡시운십수(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를 지었는데 제목을 보면 朱子의 무이구곡을 대상으로 읊은 시로 인식할 수 있으나 그이 후손 진암 정각(1799-1879)이 지은 <경차선조문목공무흘구곡운십절(敬次先祖文穆公武屹九曲韻十絶)>을 보면 '문목공 한강 정구의 무흘구곡운에 차운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강의 구곡시가 무이구곡을 대상으로 읊은 시가 아니라 무흘구곡을 읊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43] 그러므로 <앙화주자무이구곡시운십수(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는 한문 구곡시 가운데 차운 구곡시로써 무흘구곡의 실경을 온전히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武夷櫂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주자의 성리학적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조도적인 요소도 있다.

二曲佳姝化作峯 둘째 구비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봉우리로 화해서
春花秋葉靚粧容 봄꽃과 가을 단풍으로 얼굴을 단장했네
當年若使靈均識 저 옛날 영균(굴원)이 알았더라면
添却離騷說一重 한편의 이소경 또 지어 보탰으리[44]

위의 시는 무흘구곡의 이곡(李穀)으로 한강대(寒岡臺)를 노래한 것이다. 한강(寒岡) 정구(鄭逑)는 그의 나이 31세에 한강정사(寒岡精舍)를 지으면서 정사의 이름을 한강(寒岡)이라 명명한 것은 이 굽이에 한강대(寒岡臺)가 있기 때문이고, 이 대(臺)의 이름을 한강(寒岡)이라 명명한 것은 주자의 한천(寒泉)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42) 金光淳, 「寒岡의 生涯와 文學」, 『韓國의 哲學』 13,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1985, p.23.
43)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p.328.
44) 『寒岡集』 卷一, 詩 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 한국문집총간 53, p.112.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접고 학문에 매진했던 주자의 한천정사(寒天精舍)에서의 삶을 한강(寒岡)이 따르고자 대(臺)의 이름을 한강(寒岡)이라 명명하였던 것[45]이다. 한강대(寒岡臺)에 이르러 자연을 감상하면서 작자는 미녀가 봉우리로 변해서 봄과 가을에 단장을 곱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한강대(寒岡臺)에서 바라본 옥녀봉 주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굴원(屈原)이 옥녀봉의 아름다운 정경을 보았다면 이소경(離騷經)에 아름다운 장면들을 시로 표현하여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소경(離騷經)은 굴원(屈原)이 지은 것으로 굴원(屈原)은 초국(楚國)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강렬한 조국애(祖國愛)에 불타 있었다. 그리하여 난세(亂世)에도 정의감으로 보신(保身)하였으나 악덕정치가들의 참소로 국왕에게 버림받아 원한을 품고 멱라수에 투신하였다. 충성을 다하고도 비방을 받았으니 이소경(離騷經)은 끝없는 연군의 정을 나타낸 시로 문학에 준칙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이소경(離騷經)의 내용 가운데에는 온갖 기화요초(琪花瑤草)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강대(寒岡臺) 또한 그만큼 아름다움이 배어난 곳이라는 것이다. 한강(寒岡)이 한강대(寒岡臺)의 주변 아름다움을 보고 지은 <앙화주자무이구곡시운십수(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는 영균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이소경(離騷經)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 초기 <武夷櫂歌>에 대한 시의 인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입도차제(入道次第)를 읊은 시라는 인식과 또 다른 하나는 인물기흥(因物起興)을 읊은 시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대립은 <武夷櫂歌>를 조도시(造道詩)로 보느냐 서경시(敍景詩)로 보느냐 하는 대립이다. 이 두 가지 비평 양상은 바로 주자학적 문학론의 현실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식의 대립에 가장 대표적인 논자로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은 인물기흥적(因物起興的) 관점으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입도차제적(入道次第的) 관점으로 보았던 것이다. 인물기흥적(因物起興的) 관점의 작품으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한거독무이지차구곡도가운십수(閑居讀武夷志次九曲櫂歌韻十首)>[46]가와 한강(寒江) 정구(鄭逑 1543-1620)의 <앙화주자무이구곡시운십수(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47] 등과 같은 많은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입도차제적(入道次第的) 관점에서 보는 작품으로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지은 <서무이구곡후(書武夷九曲後

45)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p.337.
46)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 p.65.
47) 『寒江集』, 韓國文集叢刊 53, p.112.

)>[48]와 포저 조익(趙翼1579-1655)이 지은 <무이도가십수해(武夷櫂歌十首解)[49], 그리고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지은 <근보주선생무이구곡시운(謹步朱先生武夷九曲詩韻)>[50]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위와 같이 전기의 구곡가계 시가는 주자의 무이구곡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이 강조되어 구곡이 실제적인 공간이 아닌 이상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되었고, 주자에 대한 흠모와 숭앙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은거의 삶 속에서 주자의 삶을 실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구곡가계 시가문학에는 사대부들이 지니고 있었던 성리학적 세계관과 미의식이 잘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 <무이도가>를 차운한 차운구곡시(次韻九曲詩)의 형식을 취해 7언 절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朝鮮 後期 九曲歌系 詩歌의 變移

조선 전기는 대부분 주자에 대한 흠모를 하면서 주자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자발적인 은거생활에서부터 구곡의 설정과 경영은 시작된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 당쟁으로 인한 사림의 관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외부적 정치상황에 따라 관계를 떠나 자연 속에 은둔 하여 침잠성리(沈潛性理)하는 학문에 전념하면서부터 많은 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게 된다. 후기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결국 구곡가계 시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쳐 초기의 주자에 대한 동경이나 숭앙은 약화된다. 그리고 17세기에 성리학계 내부에서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데 윤휴(尹鑴 1617-1680), 박세당(朴世堂 1629-1703), 이익(李瀷 1629-1690)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주자에 대한 숭앙이 약화되기도 한다. 그러자 朱子의 성리학을 신봉하던 사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치적 성향의 작품을 쓰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계 친족 중심의 종족 질서 확립 및 사림들의 숭조정신 등 다양한 내용의 작품들을 쓰게 된다.

사림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치적 성향의 작품으로는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한역한 <고산구곡시(孤山九曲詩)>가 있다. 지금까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한역한 사람들을 보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

48) 『河西集』, 韓國文集叢刊 33, p.21.
49) 『鳳巖集』, 韓國文集叢刊 205, p.223.
50) 『浦渚集』, 韓國文集叢刊 85, p.408.

烈 1607-1689)의 <高山九曲歌飜文>, 우암(尤庵)과 제유(諸儒) 연작시인 <고산구곡시(孤山九曲詩)>, 삼수헌(三秀軒) 이하조(李賀朝 1664-1700)의 <우고산경행지사가(寓高山景行之思歌)>,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의 <번율옹고산구곡가(飜栗翁高山九曲歌)>, 19세기 초에 제작된 고산구곡가시화병(高山九曲歌詩畵屛)의 화제시(畵題詩) <고산국곡시화병가(高山九曲詩畵屛歌)>, 그리고 퇴경(退耕) 권상노(權相老 1979-1965)의 한역시가 있다. 이들은 모두 <高山九曲歌> 10수 전체를 한역하고 있는데 최초로 <高山九曲歌>를 한역한 우암(尤庵)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을 통하여 춘추대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효종의 승하로 좌절을 맛보게 된다. 내성외왕(內聖外王) 중 보다 근본이 되는 것은 내성(內聖)인데 內聖의 강조가 朱子·율곡(栗谷)으로 이어지는 도맥(道脈)을 계승코자 하는 의지로 나타나며, 그 구체화 중의 하나가 <고산구곡가>의 한역(漢譯)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주자·율곡으로 이어지는 도통(道統)의 정맥(正脈)을 계승코자 하는 의식의 반영[51]이라고 본다. 그리고 <고산구곡가번문(高山九曲歌飜文)>은 5언 6구의 古詩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가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려는 작가의 의도에서였다고 본다.

한편 율곡(栗谷)의 수제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그의 아들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에게서 배운 송시열(宋時烈)은 1688년에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한역한 후 朱子가 지은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의 운자를 가지고 <高山九曲歌>를 <孤山九曲詩>로 번역한다. <孤山九曲詩>는 7언 절구로 <武夷櫂歌>의 운(韻)을 밟고 있기 때문에 <고산구곡가번문>과 달리 원가(原歌)의 내용을 충실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번역은 10명이 각각 한수씩 하였는데 시(詩)의 담당자를 노론계 핵심인사로 선정하였다. <孤山九曲詩>의 차운(次韻)에 선정된 인물은 송시열(宋時烈 서시) 김수항(金壽恒 제1곡)·송규렴(宋奎濂 제2곡)·정호(鄭澔 제3곡)·이여(爾汝 제4곡)·김수증(金壽增 제5곡)·김창흡(金昌翕 제6곡)·권상하(權尙夏 제7곡)·이희조(李喜朝 제8곡)·송주석(宋疇錫 제9곡)이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은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의 아우인데 기사환국(1689)에 연루되어 진도에서 사사되고, 노론의 영수인 우암(尤庵)도 같은 해에 정읍에서 사사된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은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제월당(齊月堂) 송규렴(宋奎濂)은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생으로 우암(尤庵)에게도 배웠는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과 함께 삼송(三宋)으로 일컬어질 정도

51) 李起炫,「高山九曲歌의 漢譯樂府에 대한 一考察」,『한국학논집』24,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4, p.89.

로 학문에 조예가 깊다. 장암(丈巖) 정호(鄭澔)는 정철(鄭澈)의 현손(玄孫)으로 우암(尤庵)의 문인이다. 수곡(睡谷) 이여(李畬)·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지촌(芝村) 이희조(李喜朝)도 우암(尤庵)의 문인이다. 봉곡(鳳谷) 송주석(宋疇錫)은 우암(尤庵)의 손자다. 이처럼 송시열(宋時烈)과 가까운 인물들이 한시 번역에 참여한 것은 그 밑바탕에 도학적(道學的) 사유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산구곡시(孤山九曲詩)>에 맞추어 <고산구곡도(孤山九曲圖)>의 제작을 발의하였다. 이때 송시열(宋時烈)은 석담(이이)이 매몰되어 감은 진정 차마 말 못할 일이네 라고 하여 자신들의 정통성을 율곡(栗谷) 이이(李珥)에게서 찾으려하였다. <孤山九曲詩>의 작품 서시(序詩)에서도 송시열(宋時烈)은 『孟子』와 『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율곡의 위상을 최고로 높임과 동시에 朱子의 도가 조선의 율곡(栗谷)에게 계승되었다는 인식[52]을 하고 있다.

五百天鍾地炳靈　오백년 만에 하늘과 땅 영기를 모아
栗翁姿稟粹而淸　율곡의 자품 빼어나고 청아 하도다
高山九曲幽深處　고산의 아홉 굽이 그윽한 곳에
汩瀡寒流點瑟聲　잔잔히 흐르는 증점의 비파소리인 듯[53]

위의 시에서 오백 년 이라는 시간적 거리는 朱子의 도가 오백 년을 뛰어 넘어 조선의 율곡(栗谷)에게 계승 되었다[54]고 볼 수도 있고, 『孟子』에 "오백 년에 반드시 왕자가 나오니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유명한 자가 있다."[55]라는 말에 의거하여 하늘이 500년 간격으로 왕도를 행하는 자를 내는데 송시열(宋時烈)은 그것이 바로 율곡(栗谷)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점(曾點)의 비파소리라는 것은 『論語』에 나온[56] 曾點의 고상한 인품을 의미한 것으로 <孤山九曲詩>에서는 율곡(栗谷)의 삶이라든가 기상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도맥(道脈)의 정통성을 이이(李珥)에게서 찾으려고 하였다. 한편 윤가가 당을 지어 그를 도왔기 때

52) 이상원, 「조선 후기 고산구곡가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p.246.
53) 『국역 송자대전』 1, 민족문화추진회, 1988, p.144.
54) 이상원, 위의책, p.246.
55) 『孟子』 公孫丑章句 下,
五百年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
56) 『論語』 先進
點爾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中略-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문에 그들 파당이 크게 확대되어 이런 극악한 데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서인과의 세력 다툼에서 소론계가 남인을 돕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 인사 10인의 <孤山九曲詩>는 사림들의 공동작이라는 특성과 소론과 노론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백호(白湖) 윤휴(尹鑴)가 孔子 이후 정맥(正脈)을 주자(朱子)로 보았으며 朱子의 설만을 묵수적으로 절대 존신하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간정위주지류(奸程僞朱之類)[57]라하고 송시열(宋時烈)은 윤휴(尹鑴)를 사문란적(斯文亂賊)이라 하여 당쟁이 심화되자 노론 세력과 율곡학파 사림들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孤山九曲詩>가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孤山九曲詩>의 번역을 통해 朱子·율곡(栗谷) · 우암(尤庵)으로 이어진다는 그들의 신념과 도통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이며, 또한 우암(尤庵)이나 율곡(栗谷) 나아가 朱子에 대한 존숭이나 추모의 정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다.[58] 이처럼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도통(道統)을 둘러싼 문제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느 학파의 인물이 현실 속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들의 기반으로 하는 학문의 정통성과 인물에 대한 평가도 좌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송시열(宋時烈)은 도학과 정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통(道統)의 정신에 명실상부한 도학정치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인물로 그에 의해 도통담론은 그 자체로 권력화 된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다[59]고 본다. 결국 당쟁의 격화는 사림들로 하여금 더욱 폐쇄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반면 동질 집단 내에서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킴과 동시에 상호간의 문화적인 교류와 같은 것은 더욱 촉진되어졌다는 것을 <孤山九曲詩>를 통해 알 수 있다.

家門 의식을 잘 나타낸 작품은 장동(壯洞) 김문(金門)의 <곡운구곡차회옹무이도가운(雲谷九曲次晦翁武夷櫂歌韻)>이 있다. 곡운(谷雲)은 춘천부 서북 80 리에 위치한 곳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사탄'[60]이라 칭한 곳을 김수증(金壽增)이 朱子의 무이산 '운곡(雲谷)'의 지명을 따라 개칭한 곳이다.[61] 조선조 현종(顯宗 1659-1674) 연간에 서인들 가운데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가문은 송준길(宋浚吉 1606-1672)·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은진 송문, 김만기(金萬基

57) 『松子大全』 卷38 書 答尹吉甫.
58) 李起炫, 「高山九曲歌의 漢譯樂府에 대한 一考察」, 『한국학논집』 24,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4, p.90.
59) 남지만 「朋黨, 성리학 시대의 정치 주체」,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원서원, 2002, p.573.
60)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6, 민족문화추진회, 1982, p.39.
61) 『谷雲集』 卷之四, 谷雲記, 韓國文集叢刊 125, p.214.
谷雲在華嶽之陰春川府西北八十里 勝覽稱爲史呑 余以鄕音改稱谷雲

1633-1687)·김만중(金萬重1637-1692) 형제로 대표되는 광산 김문, 민정중(閔鼎重 1628-1692)·민유중(閔維重 1630-1687) 형제의 여흥 민문, 김수흥(金壽興 1626-1690)·김수항(金壽恒 1629-1689) 형제의 장동 김문 등이다. 이처럼 노론계 학맥에서 가장 중요한 집안 중 하나가 바로 장동 김문이다. 장동 김문은 당대 서인의 노론계 핵심 문벌이었다. 장동 김문은 김상용(金尙容 1561-1637)과 김상헌(金尙憲 1570-1652) 형제가 각각 문과에 급제하고 서인의 중진으로 명성을 날리면서 중앙정계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 후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인 김수증(金壽增 1624-1701)·김수흥(金壽興 1626-1690)·김수항(金壽恒1629-1689)의 세 사람은 삼수(三壽)로, 김수항(金壽恒)의 여섯 아들인 김창집(金昌集 1648-1722)·김창협(金昌協 1651-1708)·김창흡(金昌翕 1653-1722)·김창업(金昌業 1658-1721)·김창집(金昌緝 1662-1713)·김창립(金昌立 1666-1683) 등 여섯 사람은 육창(六昌)으로 불리며 당대에 문명을 날렸다.[62] 장동 김문은 안동 김문의 한 지파로써 안동 소산에서 16세기 이후 서울에 세거한 이래 장의동(壯義洞)에서 청풍계(淸風溪)에 이르는 지역이 그들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그 곳은 백악산에서 시작하여 인왕산 필운봉에 이르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 장의동은 서울 지역 장동 김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여기에서 유래하여 장동이라 명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운곡구곡차회옹무이도가운(雲谷九曲次晦翁武夷櫂歌韻)>은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이 발생하게 되는 데 기사환국(己巳換局)이란 숙종이 당시 생후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후궁 장씨 소생의 왕자를 元子로 정하자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송시열(宋時烈)의 상소가 도화선이 되어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김수항(金壽恒)·김수흥(金壽興) 등 서인계 정치인들이 실각한 대신 남인들이 다시 집권한 사건이다. 이 일로 김수항(金壽恒)과 송시열(宋時烈)이 사사되고 김수증(金壽增)도 회양 부사로 있다가 곡운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이미 제작해 놓은 <곡운구곡도(谷雲九曲圖)>에 <武夷櫂歌>를 차운한 구곡가를 붙여 <곡운구곡도첩(谷雲九曲圖帖)>을 만들게 되는데 이곳에 <곡운구곡차회옹무이도가운(雲谷九曲次晦翁武夷櫂歌韻)>이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곡운구곡도첩(谷雲九曲圖帖)>에 실린 차운시(次韻詩)들은 당대 유명한 여러 문인들 의하여 쓰여 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족들에 의해서만 쓰여 졌다는 점이다. 序詩(김수증)에 이어 一曲 傍花溪(김수증), 二曲 靑玉峽

62) 이효숙, 「17-18세기 장동 김문의 산수문학 연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13.

(김창국), 三曲 神女峽(김창집), 四曲 白雲潭(김창협), 五曲 明玉瀨(김창흡), 六曲 臥龍潭(김창직), 七曲 明月溪(김창업), 八曲 隆義淵(김창즙), 九曲 疊石臺(외손 홍유인) 등 그 순서가 참여자의 위상에 다라 결정 되었고, 아들로부터 손자, 외손으로 이어지는 동성(同姓) 중심의 부계(父系) 질서를 따랐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은 17세기 전반의 사가(士家) 문화와 확연하게 달라진 점으로 17세기 전반 경화 사족들의 士家에서는 가전시화첩을 제작하면서 가능한 당대의 이름난 명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해에 걸쳐서 詩文을 받아 만들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의 사족들은 1688년에 송시열(宋時烈)이 발의한 <고산구곡도첩(孤山九曲圖帖> 제작의 경우에서처럼 학통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붕당적 관점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전개해나가 시화첩 제작이 곧 붕당적 정체성을 말하여 주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수증(金壽增)의 <곡운구곡도첩(谷雲九曲圖帖)>의 경우는 이러한 시화첩과는 달리 외부의 인사를 배제한 채 가문의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화첩에 글을 싣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이후 문중의식의 대두와 부친 친족 중심의 종족질서가 강화된 달라진 이 시기의 士家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63] 다른 한편으로는 가문 내에서도 당파가 다른 인물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가문이란 근본적으로 혈연적 집단이고 정치적이나 사상적인 결사체는 아니기 때문에 가문 내에서 다른 모색을 하는 구성원이 나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였던 김수흥(金壽興)의 출현이 바로 그러했다. 젊은 시절의 김수흥은 후금(後金)의 사신 용골대(龍骨大)를 참소하라는 상소를 주동하였던 강경한 척화론자(斥和論者)였다.

> 태학생 김수흥 등 1백 38인 및 유학 이형기가 상소하여 오랑캐 사신을 참하고 그 글을 불살라 대의를 밝히기를 청합니다.[64]

이처럼 강경하던 그가 기해예송(己亥禮訟) 때에 송시열(宋時烈)의 예론(禮論)에 회의를 품고 송시열(宋時烈)에게 장문(長文)의 비판 내용을 편지로 보냈는데 그 때에도 청의 연호 강희(康熙)를 썼던 것이다. 김상용(金尙容)을 제사하는 축문에도 강희(康熙)라는 연호를 쓰려고 하자 온 문중이 가문의 적이라고 비난을 하였다.

그가 송시열에게 준 禮를 논한 글 머리에 '康熙 4年'이라고 썼는데, 그 당시는 官文書

63) 조규희, 「곡운구곡도첩의 다층적 의미」,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06, p.226.
64) 『국역왕조실록』, 인조실록 14년 2월 25일 경자.

이외에는 비록 下賤일지라도 청나라 연호를 쓰는 자가 없었건만 김수홍만 홀로 썼다. 또 그의 조부 김상용을 제사하는 축문에도 '康熙'라는 연호를 쓰려고 하므로 온 문중이 몹시 놀라서 가문의 賊이라고 하였다.[65]

이는 곧 김수홍(金壽興)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행위이었겠지만 척화신(斥和臣)의 후예로서 장동 김문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책임감과 연대의식의 강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곡운구곡시(谷雲九曲詩)>를 보면 가문의 결속을 꾀하려는 강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침잠하려는 강한 의지도 잘 표출되어 있다.

六曲幽居枕綠灣 육곡의 그윽한 곳 푸른 물을 벼개 삼고
深潭千尺映松關 천길 깊은 물 속에 송림이 비치네
潛龍不管風雲事 시끄러운 세상일 숨은 용은 모르니
長臥波心自在閑 물 속에 길이 누워 한가롭게 사누나
第六曲 臥龍潭(金昌直)

위의 시는 육곡 화룡담을 노래한 것이다. 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수증(金壽增)은 그의 일생동안 잦은 당쟁으로 부침을 거듭하여 현세에 대한 도피의식이 강했던 관계로 초야에 묻혀 산 제갈공명(諸葛孔明)을 흠모하여 육곡을 와룡담(臥龍潭)으로 명명한 것 같다. 와룡(臥龍), 또는 잠룡(潛龍)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은둔해 있는 선비를 의미하므로 여기서는 곡운구곡(현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일대)에 은거해 있는 김수증(金壽增)을 말한 것 같다. 이처럼 <운곡구곡차회옹무이도가운(雲谷九曲次晦翁武夷櫂歌韻)>은 시끄러운 속세를 멀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아울러 내재되어 있다.

조상에 대한 숭조정신(崇祖精神)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는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가 있다.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이 82세 1752(영조28)에 백부(伯父)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위하여 지은 구곡체 시조 작품으로 권상하(權尙夏)가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44년간이나 살았던 제천군 한수면 황강유역을 노래한 작품이다. 권섭(權燮)은 노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출사하지 않고 일생은 탐승과 문학 창작으로 보냈다. 총 3000여 편에 달하는

65) 위의책, 숙종실록 1년 4월 9일 정유.

한시문과 함께 75수의 시조, 2편의 가사를 남겼다.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의 배경이 되는 황강은 송시열(宋時烈)의 수제자인 백부(伯父)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한수재(寒水齋)를 지어놓고 학문 연마와 후학 양성에 힘쓰던 곳이다.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한수재(寒水齋)를 중심으로 주변의 대암, 화암, 황강, 황공탄, 권호, 금병, 부용벽, 능강, 구담 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옥소장계(玉所藏啓)』에서 권섭(權燮)은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櫂歌)>,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와 그에 대한 송시열(宋時烈) 등의 한역시 및 관련 기록 등을 싣고, 자신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무이구곡(武夷九曲)→고산구곡(高山九曲)→화양구곡(華陽九曲)→황강구곡(黃江九曲)으로 구곡 경영의 전통이 계승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의 일차적인 의미는 주자(朱子)·이이(李珥)·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66] 사회적으로는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 가문 내지 향촌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개인적으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심성수양을 통해 사대부로서의 정신적 긍지를 드높이려고 한 재지 사족의 현실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일어난 호락논쟁을 고려해 볼 때 정치적으로는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음을 살필 수가 있다[67]고 본다.

四曲은 어드메오 일홈도 흘난홀샤
灘聲과 岳危이 一壑을 흔드는듸
그 아래 깁히자는 龍이 櫂歌聲의 씨거다

위의 시는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사곡(四曲)이다. 四曲의 초장에서 황공탄(惶恐灘)의 이름이 혼란스럽다고 한 것은 황공탄(惶恐灘)이 중국 강서성(江西省) 감강에 있는 십팔탄(十八灘)의 하나인 황공탄(惶恐灘)과 이름이 같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감강 황공탄(惶恐灘)의 발원지가 바로 무이산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활용하여 옥소(玉所) 권섭(權燮)은 '무이산에서 발원한 물이 감강의 황공탄에 이르는 것'과

66) 이상원,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배경과 그 의미」,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p.272.에서도 『옥소장계』가 주희→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의 흐름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67) 양정화, 「18세기 사대부 시조 미학의 한 양상」, 성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p.114.

'朱子의 무이구곡의 도학이 권상하(權尙夏)의 황강 황공탄(惶恐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포개어 놓은 것.[68]이다. 종장의 황공탄(惶恐灘) 아래 깊이 자는 용이 도가성에 깨었다고 했는데 물에 잠긴 용은 권상하(權尙夏)를 의미한다고 보며, 깊이 자는 잠이라는 것은 임금이 권상하(權尙夏)에게 여러 번 벼슬을 제수했으나 정계에 나가지 않고 황강에 은거해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 본다. 권상하(權尙夏)는 1675년(을묘) 숙종대왕 원년에 2차 예송(禮訟)의 사건으로 억울한 귀양을 가게 되자 세도(世道)에 환멸을 느껴 가족을 데리고 황강가로 들어와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 그 후 1695년(55세) 장령이라는 벼슬에 제수 되자 사직하지만 윤허하지 않는다. 그러자 계속 사직하기를 반복하게 되고 1696년에도 특별한 유지로 임금의 부르는 명이 있었지만 상소하여 사절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용이 뱃노래에 잠을 깨었다고 한 것은 바로 朱子의 학문을 계승한 것을 의미한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를 짓게 된 동기는 문학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본다. 당시 도통을 둘러싼 18세기 호락의 논쟁은 지역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는데 낙론과 호론의 상호 비판이 가열되면서 '권상하(權尙夏)·한원진(韓元震)' 계열과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계열의 대립구도가 확립되었다. 낙론 계열은 자신들의 견해를 김창협(金昌協)에 연결시킴으로써 기호학파의 계보를 '송시열(宋時烈)→김창협(金昌協)→이재(李縡)'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러자 이에 위기를 느낀 호론 계열은 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한원진(韓元震)으로 이어짐을 천명함으로서 김창협(金昌協)을 따르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권상하(權尙夏) 문인들을 결집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권상하(權尙夏)의 학문적 위치가 흔들리는 시기에 이르러 기호학파의 도맥(道脈)을 재확립하려는 일련의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 것[69]이라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섭(權燮)은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를 짓고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으로 하여금 <황강구곡도(黃江九曲圖)>를 그리게 하였는데 <황강구곡도(黃江九曲圖)기>를 통해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의 창작 동기와 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다.

> 수는 1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난다. 9는 뛰어난 덕을 나타내는 수이다. 예로부터 성현의 거처는 반드시 구곡으로써 이름을 지었다. 율곡의 고간구곡, 우암의 화양구곡, 곡운

68) 이상원, 위의 논문, p.163.
69) 장정수, <黃江九曲歌>의 창작 배경 및 구성 방식, 『시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p.249.

(김수증)의 곡운구곡과 같은 경우는 그 근원을 다하여 그쳤고, 주자의 무이구곡은 경치가 뛰어난 곳을 다하여 그쳤으며,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미진함을 그만둘 수 없었기에(12까지 이르어)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9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중략>--슬프다 선생이 살아 계실 때는 거문고 소리, 글 읽는 소리가 넘치더니,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는 바람과 안개만 조용하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를 뿐이니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에 어린 손자 신응을 이끌고 면전에서 황강구곡도(黃江九曲圖)를 그리라 하고, 겸재 정선의 솜씨를 빌려서 붓으로 옮겨 그리라 하고 그 밑에 이 글을 쓰고 위에는 또 내가 지은 시가를 적어 무이, 고산 족자와 나란히 쌍벽에 걸었다.70)

윗 글을 통해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를 창작한 직접적인 동기가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선생의 학풍이 쇠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다. 선생이 살아 계실 때에는 한수재에 거문고 소리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넘쳤는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자 바람과 안개에 싸여 적막감이 감도니 눈물만 흐를 뿐이라고 하여 백부(伯父)에 대한 추모의 정과 선생의 유풍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백부(伯父) 권상하(權尙夏)의 도학자다운 모습을 부각시키고 쇠락해가는 가문을 선양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고 본다.

五曲은 어드메오 이 어인 權소ㅣ런고
일홈이 偶然ᄒᆞᆫ가 化翁이 기ᄃᆞ린가
이 中의 左右村落의 살아 볼가 ᄒᆞ노라

오곡(五曲)에서 권(權)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沼)의 이름과 권(權)이라는 가문의 성씨가 일치함이 우연이 아니다는 것이다. 조화옹(조물주)이 권소(權沼)라 이름을 지어 놓고 권씨 성을 가진 사람, 즉 권상하(權尙夏)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종장에서는 자신도 황강에 살면서 선생의 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존숭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백부를 이어 황강가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70) 『玉所稿』 文4, <黃江九曲圖記>(장정수,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 및 구성방식」, 『시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1, 2004, p.244. 再引用)
數始於一 而窮於九 九者龍德之數也 從古聖賢之居 必皆以九曲名 如栗翁之高山九曲 尤翁之華陽九曲 雲翁之谷雲九谷 窮其源而止 如朱子之武夷九谷 窮盡勝處而止 退翁之陶山十二曲 不可勝未盡而止 故亦不拘於九數矣--<中略>--嗚呼 先生之存 絃誦洋洋 先生之沒 風煙廖廖 涕淚俯仰 小子爲何 必乃乎休面命於稚孫信應 寫出黃江九曲圖 借謙齋鄭敾名手 筆而傳摹之 書此文於下方 而上頭又自作歌詩而寫之 與武夷高山之簇對掛之於桑碧

의지를 탁물우의(托物寓意)의 표현을 통해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주자(朱子)→이이(李珥)→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로 이어지는 도통을 밝히기고,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선생의 학풍이 쇠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형식상 한시로 되어 있지 않고 시조로 되어 있다. 대개 '구곡시'는 사상으로서 성리학이 문학적으로 발현된 구체적인 예가 되며, 구곡시의 성립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성숙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국문으로 된 구곡가가 창작 되었다는 사실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그것을 자기화 하는데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즉 국문 구곡가는 구곡시의 전통을 우리말로 구현한 것으로 주자학이 조선 성리학으로 재창조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로써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71], 구곡가계 시조의 맥을 잇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재응(鄭在應 1764-1822)은 주자(朱子)와 율곡(栗谷) 이이(李珥),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로 이어지는 기호사림의 학자로 <근차주선생도가운십수(謹次朱先生櫂歌韻十首)>를 지었다. 『국역 송강집』[72]에 실려 있는 세계도(世系圖)를 보면 정재응(鄭在應)은 정철(鄭澈)의 후손으로 자(字)는 용경(龍卿)이며, 호(號)는 잠재(潛齋)다. 그는 "책상위에 오직 정이와 주자, 율곡(栗谷)과 우암(尤庵)의 여러 선생이 남긴 몇 권의 책들을 두고, 공부하는 것은 정이(程頤)와 朱子의 학문이요, 말하는 것은 율곡(栗谷)과 우암(尤庵)의 행실이었다."[73] 라고 할 정도로 정주학(程朱學)을 숭상했으며, 율곡(栗谷)과 우암(尤庵)을 숭상하고 그 행실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가 신미년(1811)에 지금의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계리로 와서 살게 된 것은 그의 선조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쌍계가 아름답고 연풍과 괴산 사이에 승지가 있다고 하니 내가 장차 집칸이나 짓고 여생을 거기에서 보내려고 한다."[74]는 데서 영향을 받아 다

71)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權燮의 <黃江九曲歌>」,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2, p.284.

72) 『國譯 松江集』, 松江集 別集 卷二 世系圖, 松江遺蹟保存會, 1988, p.473.

73) 『潛齋集』 卷七, 附錄 祭文.
案上唯程朱栗尤諸先生幾卷遺書矣 所講者程朱之學也 所語者栗尤之行也(李相周, 「鄭在應의 雙溪九曲과 雙溪九曲詩」, 『청주대학술논문집』 제3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4, p.147. 再引用)

74)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p.343.
答延豊倅書
所謂劍巖者何地 果能與雙溪水石相伯仲也 隨便示之 延槐之間果有勝地 吾將仍樹爲屋度了餘日 善爲我指揮何如
위의 책, p.175.
奉贈君會舊契尹景福
兒說雙溪洞 아이들 말 들으면 쌍계동이란
孤雲隱不還 최고운이 숨어있던 곳이라 하네

고 한다. 따라서 정재응(鄭在應)은 조상을 숭배하려는 숭조정신(崇祖精神)과 정주학(程朱學)을 숭상한 기호사림(畿湖士林)의 문인학자로서 어진사람을 본받으려는 상현정신(尙賢精神)이 투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努力躋攀勢豁然 휘어잡고 힘써 올라가니 지세가 탁 트이네
南隣離嶽北槐州 남쪽으로는 속리산 복쪽으로는 괴산일세
殘年獨抱春秋傳 남은 생애 동안 다만 春秋傳을 안고 싶네
地接巴溪小洞天 땅은 巴溪와 인접해 있어 小 華陽洞일세

위의 시는 <근차주선생도가운십수(謹次朱先生櫂歌韻十首)>의 구곡(九曲)으로 정재응(鄭在應) 자신이 남은 생애 동안에 『춘추전(春秋傳)』을 읽으면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춘추전』은 춘추시대의 역사책으로 작품에서는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본다. 그리고 제4구의 파계(巴溪)는 지금 화양구곡의 제9곡 파곶(巴串)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화양구곡 전체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양동은 산수가 수려한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을 배향한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서인계 노론학파의 성지였다. "소동천(小洞天)"은 쌍계동천(雙溪洞天)을 "작은 화양동(華陽洞)의 화양동천(華陽洞天)"인 "소화양동(小華陽洞)"의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쌍계(雙溪)의 산수를 화양(華陽)의 산수에 비교하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에 대한 숭모정신(崇慕精神)을 나타낸 것임과 동시에 자신은 "소우암(小尤庵)"이라는 자부심을 은근히 나타낸 것이라 본다. 정재응(鄭在應)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매우 숭모(崇慕)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의 5대손인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의 제자이기도 하다.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사림파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무이도가(武夷櫂歌)>가 실학파 학자들에게는 일단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보이다가 19세기 이후 다시 <武夷櫂歌>를 중요시하고, <武夷櫂歌>에 차운한 시가 나오게 되는데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 10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응와(凝窩)는 60세가 되던 철종 2년에 고향 근체

築居名偶似 마을이름 우연히 서로 같으니
吾欲老玆山 나 역시 이산에서 늙고 싶구나
『潛齋集』 卷六, 仍樹齋名.
祖松江府君 嘗有延槐之計 觀於答延豊宰尹公書中 可知也 余自少時 欲遂先志

인 성주군 가천면 가야산 북쪽의 포천 계곡에 만귀정(晩歸亭)이라는 정자를 지은 후에 포천계곡의 굽이마다 이름을 붙여 포천구곡이라 명명하고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를 지었다. 응와(凝窩)가 태어난 18세기 말은 영조와 정조의 치세를 통하여 문물이 새롭게 정비되어 가던 시기였으나 19세기로 넘어 오면서 조선은 노론의 세도정치로 인해 도처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서양의 문명과 사상이 조선의 지배 이념이던 유교적 가치관을 동요시켜 성리학적 이념과 정서가 이완되어 가는 시대였다. 그런 속에서 응와(凝窩)는 영남 남인(南人)의 일원으로 정통 주자학(朱子學)과 퇴계학(退溪學)으로 단단히 무장한 그가 당대 사회의 제반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성리학의 전통가치를 지키고자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를 지었다고 보며, 이는 곧 19세기 이래 일기 시작한 주자학풍의 새로운 부활을 반영한 것[75]이라 본다. 그러나 퇴계(退溪)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차운시(次韻詩)와는 차이점이 있다. 가령 퇴계(退溪)가 <武夷櫂歌>에 차운한 시(詩)는 원시(原詩) 자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0수의 詩가 하나하나 주시(朱詩)의 뜻과 대응된다. 하지만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는 道에 뜻을 둔 초학자(初學者)가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道의 극치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武夷櫂歌>의 원의(原意)를 충실히 반영했다[76]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차운시(次韻詩)와는 차이가 있다.

九曲洪開洞廓然 구곡이라 홍개동 환하게 트였는데
百年慳秘此山川 백 년 동안 이 산천을 아끼고 감추었네
新亭占得安身界 새 정자 지어서 안신할 곳 얻으니
不是人間別有天 이것이 인간의 별유천이 아닌가?[77]

위의 시는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의 九曲詩이인데 제구곡은 홍개동이다. 주자의 <武夷櫂歌> 구곡에 나오는 시야가 환하게 트인다는 표현인 "안활연(眼豁然)"은 일곡(一曲)에서부터 이곡(二曲)·삼곡(三曲)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비경이 전개되다가 점차 넓어져서 구곡(九曲)에 이르러 시야가 탁트인 평원이 나타나는 지형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조선조의 주자학자들이 애쓰고 땀 흘리며 공

7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凝窩 李源祚의 布川九曲次武夷櫂歌에 對하여」,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역락, 2006, p.311.
76) 위의 책, p.329.
77)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앞의 책, p.327. 再引)

부하다가 종국에 터득되는 득도의 기쁨에 비유한 것[78]이고 상마(桑麻)와 우로(雨露)는 평상적이고 일용적인 사물들 사이에 道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별유천지의 도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자의 九曲詩 내용이다. 이처럼 응와(凝窩)도 九曲의 명칭을 홍개동(洪開洞)이라고 한 것은 이름 그대로 넓게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의 극치를 의미한 것이라 본다. 그리고 홍개동(洪開洞)도 별유천지가 아니라는 것은 道의 극처가 평상적이고 일용적인 사물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는 주자 시의 뜻을 그대로 수용한 것[79]이라 본다. 이처럼 응와(凝窩)의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는 <武夷櫂歌>를 조도시(造道詩)로 보고 차운(次韻)하여 쓴 조선조 말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시인 것이다.

이 외에도 朱子의 <武夷櫂歌>를 수용하여 다양한 구곡계 시가들이 나오게 되는데.[80] 후기로 오면서 구곡가계 시가의 구곡은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 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은거하는 실제적 공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구곡을 선정한 사림들은 대부분 주자의 심오한 학문자세와 고결한 인품을 숭앙하고 자신들도 이를 실천하여 학문과 교육에도 정진하려고 하였으며, 구곡을 현실 속에 실존하는 신선의 세계로 갈구하여 속세의 번민과 갈등에서 초탈하려 했거나 신선연(神仙然)하며 유유자적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환멸이나 비판의식, 그리고 작자의 의식 세계를 읊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형식은 5언 절구나 또는 7언 절구 내지 5언 절구로 쓰되 연시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실학사상이 융성기를 맞이한 영·정조 시대부터는 구곡가계 시가가 형태적인 면에서 어부가 문학과 혼효현상이 일어나고[81] 그 외에 시조나 가사형태를 취한 구곡가계 시가가 나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문학적 표현법은 인물기흥(因物起興)이나 탁물우의(托物寓意), 또는 전경후정(前景後情)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78)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硏究』, 月印, 2000, p.135.
7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앞의 책, p.328.
80) 병와 이형상(1653-1733) <성고구곡십절>, 훈수 정만양(1664-1730) <횡계구곡가>, 변계 윤봉구(1681-1767) <가야구곡<, <차무이구곡운>, 산수헌 권진응(1711-1775) <화양구곡>, <화무이도가십수>, 근품재 채헌(1715-1795) <석문정구곡도가>, 이계 홍양호(1724-1802) <우이구곡>, 후계 이이순(1754-1832) <유도산구곡>, <경차무이도가운>, 하계 이가순(1768-1844) <퇴계구곡>, <도산구곡>, <옥산구곡>, <원명구곡>, 관암 홍경모(1774-1851) <우이구곡가>, 경암 이한응(1778-1864) <춘양구곡시>, 응와 이원조(1792-1871) <포천구곡>, <차무이도가> 등, 이외에도 많은 구곡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문기, 『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기, 2005. 김문기·강정서 『경북의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이상주,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충청북도 충북학연구소, 2007. 참고할 것.
81) 金文基, 「九曲歌係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 1991, p.52.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九曲歌系 詩歌의 美意識

1) 因物起興의 寓興

우리 고전시가에서 인물기흥(因物起興)은 朱子의 <武夷櫂歌>를 입도차제(入道次第)로 해석한 元나라 진보의 도가시주(櫂歌詩註)의 주석을 작품에 입각해서 세밀히 비판하고 부정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진보(陳普)의 주석은 작품 하나하나의 字句에 대한 본주(本註)와 평석(評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봉(高峯)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았던 것은 그의 평석(評釋)에 있었다. 그런데 애초 진보(陳普)의 주석(註釋)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퇴계(退溪)였다.

> 櫂歌詩註는 武夷櫂歌의 차례를 學文入道次第로 보았는데 아마 선생의 본의는 이와 같이 구구하지 않았을 것이다.[82]

이처럼 퇴계(退溪)는 <武夷櫂歌>에 담긴 의미를 진보(陳普)의 평석(評釋)과 같이 해석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서간(書簡)의 별지(別紙)에 적어 각별히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자 고봉(高峯)은 퇴계(退溪)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켰다.

> 朱子의 武夷櫂歌 九曲 十章은 물(物)에 말미암아 흥(興)을 일으키고 이로써 가슴속의 취(趣)를 그려내매 의(意)를 부치고 언(言)을 베풂이 참으로 모두 청고화후(淸高和厚)하고 충담쇄락(沖澹灑落)하여 곧 욕기(浴沂)의 기상과 더불어 그 쾌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한낱 입도(入道)의 차제를 꾸며 남모르게 구곡 도가(櫂歌) 속에 베껴 넣고 이로써 은미한 의(意)를 부쳤을 까닭이 있으랴[83]

이처럼 도가시주(櫂歌詩註)의 해석(入道次第)을 단호히 부정하고 주자(朱子)의 본

---

82)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 p.413.
櫂歌詩註 以九曲詩首尾 爲學問入道次第 竊恐先生本意不如是拘拘也

83) 『高峰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影印, 1976, p.166-167.
私竊以爲朱子於九曲十章 因物起興以寫胸中之趣 而其意之所寓 其言之所宣 固皆淸高和厚 沖澹灑落 直與浴沂氣象同其快活矣 豈有粧撰一箇入道次第 暗暗地摹在九曲櫂歌之中以寓微意之理哉

의는 인물기흥(因物起興)에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고봉(高峯)의 '물(物)에 말미암아 흥(興)을 일으킨다.' 라는 인물기흥(因物起興)은 그 유래가 주희의 『시집전(詩集傳)』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시집전(詩集傳)』 <도요(桃夭)> 제1장의 전(傳)에 보면 '시인이 보고 있는 바에 말미암아 흥을 일으키고 그 여자의 어짊을 기렸다.'[84] 라는 말이 보이고, <토저(兎罝)> 제1장의 전(傳)에 '시인이 하고 있는 바에 말미암아 흥을 일으키고 그 일을 기렸다.'[85] 라는 말이 보인다. 주희(朱熹)의 전(傳)에 보이는 '보고 있는 바'(所見)라는 말과 '하고 있는 바(所事)' 라는 말은 객관에 존재하는 사물·사실을 뜻하는 것이니, 따라서 주희(朱熹)의 '보고 있는 바에 말미암아 흥을 일으키고' 라는 말과 '하고 있는 바에 말미암아 흥을 일으키고' 라는 말은 고봉(高峯)의 인물기흥(因物起興)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86]고 생각한다.

강호시가에서 인물(因物)의 물(物)은 현상적이며 실존적인 객관물로써의 존재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즉 천지라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여러 존재물로써의 생명체와 이러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까지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흥(起興)은 사물의 어떤 요소로부터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때의 흥(興)은 오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로서의 감정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감정적 변화의 내용은 물론 자연경물의 개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흥(興)은 그러한 다양한 감정적 변화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야만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인물기흥(因物起興)에서 물(物)을 어떻게 인식하며 또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흥(興)의 내용과 질 또는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물(因物)이 작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흥(興)의 내용과 깊이 내지는 종류를 결정짓는 요인이요 원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이다.[87] 그러면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一曲은 어드메오 花岩이 奇異홀샤
仙源의 깊은 믈이 十里의 長湖로다
엇더타 一陣帆風이 갈ᄃᆡ 아라 가ᄂᆞ니[88]

---

84) 『詩集傳』, 桃夭 第1章 傳
詩人因所見以起興 而歎其女子之賢
85) 위의책, 兎罝, 第1章 傳
詩人因所事以起興而美之
86) 김태환, 「고봉(高峯) 기흥설(起興說)의 미학적 의미」-흥(興)의 미적 본질 문제-, 『정신문화연구』 2003 봄호 제26권 제1호(통권 9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p.128.
87) 손오규, 「산수문학에서의 因物起興」, 『반교어문』11, 반교어문학회, 2008, p.92.

옥소(玉所) 권섭(權燮)은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를 짓고, 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으로 하여금 황강구곡도(黃江九曲圖)를 그리게 하였으며 권섭이 황강구곡도기(黃江九曲圖記)를 썼는데[89], 황강구곡도기(黃江九曲圖記)에 의하면 '대암은 큰 석대 하나가 십리나 되는 긴 호수의 입구에 서있어 노가 서로 부딪칠 정도다.'[90] 고 하였고, <황강구곡가>에서는 "一曲은 어드메오 花岩이 奇異홀샤 仙源의 깊은 믈이 十里의 長湖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선이 살고 있는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긴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기이한 바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一陣帆風이 갈ᄃᆡ 아라 가ᄂᆞ니"라는 것은 그 바위 사이로 돛단배가 부딪치지 않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띄워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미적 쾌감은 물(物)과 나(我)를 일체화하여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데서 오는 것으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흥취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一曲灘頭泛釣船 일곡의 시냇가에 고깃배를 띄우니
風絲繚繞夕陽川 실바람이 석양천을 감돌고 있다.
誰知損盡人間念 누가 알리오 세상 근심 모두 버리고
唯執檀槳拂晩煙 단장 짚고 저녁 안개 속에 노질함을[91]

정구(鄭逑)의 <무흘구곡가(武屹九曲歌)> 일곡(一曲)은 봉비암 주변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작자는 실바람이 부는 석양의 냇가에서 고깃배를 띄워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보니 너무도 아름답고 그 속에 깃든 자신 역시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특히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에서 '누가 알리오 세상 근심 모두 버리고 단장 짚고 저녁 안개 속에 노질함을'은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에서 '홍진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ᄒᆞᆫ고'에서처럼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만족을 표현한 것이라 본다. 더욱이 저녁 안개 속에 배를 띄워 노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환상적이며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처럼 구곡가계 시가에 나타난 공간적인 이미지는 청정성과 탈속성이 부각되어 있

88) 權燮,『玉所藏杏』, 黃江九曲歌 一曲(朴堯順,『玉所 權燮의 詩歌硏究, 探求堂, 1990, p.125. 再引用)
89) 權燮,『玉所稿』文四, 黃江九曲圖記.
携面命於稚孫信應 寫出黃江九曲圖 借謙齋鄭敾名手 筆而傳摹之 書此文於下方
90) 權燮, 위의 책
其曰對岩 一大石臺 當十里長湖之口 與舟楫而相撞
91) 鄭逑 ,『寒岡集』卷一, 詩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 一曲, 韓國文集叢刊 53, p.112.

는 것이 특징이다.

三曲橫坡等藕船　삼곡의 빗긴 언덕은 신선배 모양이고
仙遊物外晝如年　신선처럼 물외에 노니니 일 년이 하루네
腸間五累今消盡　마음 속 다섯 근심 이제야 씻어내니
寶鑑明明我最憐　거울처럼 밝은 마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네[92]

삼곡(三曲)은 횡파(橫坡)다. 주자의 <武夷櫂歌> 3곡에도 가학선(架壑船)이라는 배가 나오는데 가학선(架壑船)은 원주민의 주거지 겸 묘다.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암혈(巖穴)에서 살다가 식구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배 모양의 관을 만들어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한 후 주거지를 옮기는 풍속을 지녔다. 관(棺)의 모양이 배인 것은 사자(死者)와 사자(死者)의 영혼이 배를 타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세계로 간다는 염원이 어린 장례의식이었다.[93] 이 가학선(架壑船)과 같은 배 모양이 운문산의 3곡에도 있었는데 이 배를 타고 선유(仙遊)하니 마음이 거울처럼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話者)는 자연을 통해 느끼는 흥취 속에 정신적 안온(安穩)과 소요(逍遙)를 누리며 무욕(無慾) 속에서 사기(邪氣) 없는 순수한 마음을 노래했고, 이 순수성의 극치가 바로 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三曲 一竿竹을 夕陽의 빗기들고
淸江을 구어보니 白魚도 하고 할샤
이만슬 世上 人間의 제 뉘라셔 알리오[94]

이중경(李重慶)의 <오대어부가(梧臺漁父歌)> 삼곡(三曲)은 화자(話者)가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맑고 깨끗한 정서가 흐른다. 황혼녘에 낚싯대를 물속에 던져놓고 맑은 강물과 그 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한가롭게 시간을 즐기는 어부의 모습은 너무나 한가롭고 평화롭다. 중장의 '淸江을 구어보니 白魚도 하고 할샤'에서 석양의 하얀 물고기와 자신은 우주자연의 질서와 조화, 자유로움과 대채로움을 표상

92) 朴河淡, 雲門九曲歌 三曲.
93) 李敏弘, 『사림파문학 연구』, 月印, 2000, p.379.
94) 李重慶, 『壽軒先生文集』. 卷5, 附錄, 梧臺漁父歌, 三曲(張仁鎭, 「새로 발굴된 李重慶의 梧臺漁父歌」, 『圖書館學報』 10, 韓國圖書館學會, 1983, p.171. 再引用)

한 것이며, 특히 종장의 '이만술 世上 人間의 제 뉘라셔 알리오'라는 표현은 자연에 속에 묻혀서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다.

三曲은　어대인고
廣大峰의　天然態度　玉女下降　하얏고나
九折杖을　놉히집고　龍淵瀑布　귀경後에
甘露水를　잔질하고　洗頭盆에　沐浴하니
半日神仙　내안인가[95]

이도복(李道復)의 <이산구곡가(駧山九曲歌)>는 후산(厚山) 이도복(李道復)이 마이산 아래 이산정사(駧山精舍)를 낙성한 후 朱子의 무이구곡을 전범으로 하여 지는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이다. <이산구곡가(駧山九曲歌)>의 제3곡은 광대봉(廣大峰)을 노래하고 있다. 광대봉(廣大峰)의 모습을 선녀가 하강한 것에 비유하여 매우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여 신선들이 짚고 다녔다는 구절죽장(九節竹杖)을 짚고 이곳저곳 구경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한 번 맛을 보면 불로장생한다는 감로수를 먹은 후 용연 폭포아래에 있는 세두분(洗頭盆)에서 목욕을 하고보니 내가 바로 신선이 아닌가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신선이란 초세초탈(超世超脫)한 선경을 지향하고 불사불로(不死不老)하며 현실적 시공을 초탈한 이상적인 존재다. 이러한 기풍(氣風)은 이상적인 별천지를 상상하고 희구하게 되어 승지(勝地)를 선경(仙境)으로 미화시켜 천지만물이 그들에 의하여 극도로 찬미되었기 때문에, 신선사상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가에 있어서 자연미를 발견하고 이것을 미화시키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桃花ᄯᅡ라 가자스라 九曲石門 가ᄌᆞ스라
金鶴峰 ᄇᆞ릭보니 큰길이 널너셔라
觀瀾臺 나린물은 晝夜로 洋洋ᄒᆞ니
亞聖의 ᄒᆞ신말숨 긔아니 올토텬야
渭川漁父 노던덴가 釣臺도 완연홀샤
滿山紅綠 자자ᄂᆞᆫᄃᆡ 光風霽月 그지업다

95) 李道復, 『厚山集』(류재영, 「이산구곡가에 대하여」, 『한실 이상보박사 회갑기념논총』, 한실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7, p.189. 再引)

觀魚石 비긴후의 무어시 즈미런고
깁푼못 쒸는고기 靑天의 ᄂᆞ난쇼록
任意로 노는양은 自然性 그러커든
하물며 사ᄅᆞᆷ이야 本ᄆᆞᄋᆞᆷ 일흔손가
洗心堂 幽寂ᄒᆞᆫᄃᆡ 石門을 구지닷고
風月을 벗즐ᄉᆞ마 이ᄆᆞᄋᆞᆷ 길러보자 ᄒᆞ노라[96]

<석문정구곡도가(石門亭九曲櫂歌)>의 구곡(九曲)은 석문정(石門亭)이다. 석문정(石門亭)에 대해 작가는 복숭아꽃이 떠내려 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처럼 인간 세상과는 다른 별천지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석문정의 주위에는 금계봉, 관란대가 있고, 태공망 여상이 놀던 곳과 같은 조대에 풍광제월(光風霽月)하니 더욱 아름답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름다운 공간에서 깊은 물속에는 고기가 뛰고 맑은 하늘에는 솔개가 나는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에 자신도 동화되어 즐기는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紫陽琴 빗기안고 玉溪洞門 도라드니
古湫에 누은龍이 ᄌᆞ최소릐 반기는듯
撫松巖에 수건걸고 濯纓瀨 갓근씨셔
鼓瑟潭이 어듸민오 一絲臺를 지나거다
秋月潭 一輪月은 千載心이 뚜렷하고
靑楓峽 萬仞壁은 北極星을 밧쳐잇네
뭇노라 巖下龜아 神州休運 어늬오
洞天이 豁然開하니 弄湲溪가 여긔로다
童子아 슐부어라 거문고의 줄고루고져
武夷溪 九曲歌를 次第로 和答하니
玉女峰上 千年鶴이
古今調에 同不同 아는다 모르는다[97]

위의 노래는 유중교(柳重敎)의 <옥계조(玉溪操)>다. 작가는 자양금(紫陽琴)을 가

96) 蔡濾, 『石門亭集』(筆寫本), 石門亭九曲歌.(김문기. 『聞慶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한국학술정보, 2005, p.204. 再引)
97) 柳重敎, 『省齋先生文集』 別集, 「東謠律格」 玉溪操, 韓國文集叢刊 324, p.559.

지고 옥계동으로 들어가 옥계구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구곡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노래하는데 옥계구곡이 별천지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구곡의 마지막인 농원(弄湲)의 시냇가에 앉자 술을 마시며 자양금(紫陽琴)을 가지고 주자의 <武夷櫂歌>에 화답해서 <옥계구곡가(玉溪九曲歌)>를 부르니 옥녀봉 위의 학들도 함께 즐겨 한다는 물아일체(物我一體)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조 사림들은 구곡을 통해 속세의 번민과 갈등에서 초탈하려 했거나 구곡을 실존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신선의 세계로 간주하여 신선적(神仙的)이며 초속적(超俗的)인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托物寓意에 의한 回憶

탁물우의(托物寓意)에서 탁(托)의 기본적인 뜻은 기탁(寄托)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묘사된 사물에 의도한 뜻을 기우(寄寓)하여 밝히는 것이다. 어떤 물(物)에 기탁(寄托)하여 작자가 현실 속에서 받은 느낌과 평소의 이상을 표현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풍유의 의미를 표현해 내는 것이다. 즉 작자가 자신의 이상, 희망, 감정이나 풍자 및 비판의 대상 혹은 현상 등을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물에 기탁해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빌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작자의 이상·희망·감정·풍자 및 비판의 대상 혹은 현상이 될 것이고 기탁(寄托)은 작자의 주관적인 사상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物)에 기탁(寄托)하는 목적은 직설(直說)함으로써 야기 시킬 수 있는 불쾌한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무형의 지(志)를 유형의 상(象)으로 변화시켜 독자의 뇌리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물에 뜻을 기우(寄寓)하는 데에는 대부분 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나 사상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98] 그리고 물(物)은 작자의 의(意)를 드러내기 위해 차용된 외물(外物)인 기탁(寄托) 대상이다. 우의(寓意)는 말하고자 하는 속뜻을 감추고 다른 사물에 의탁해서 간접적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풍유, 비유, 상징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탁산수(托山水), 탁인물(托人物), 탁미물(托微物), 탁기물(托器物) 등이 있다. 탁산수(托山水)란 유람하면서 경물의 이동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낸

98) 손다옥, 「유종원 산문의 托物喩志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 2006, p43.

다거나 아름답지만 알아주지 않는 경물(景物)을 통해서는 버림받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탁인물(托人物)은 어떤 인물을 통해 당시의 사회 병폐를 폭로한다거나 청렴함을 통해 이상적인 치국(治國), 또는 관리(官吏)나 인간상(人間相)을 제시하기도 한다. 탁미물(托微物)은 미물의 형상을 통해 사회의 병폐, 관리의 추악함, 또는 이상적인 관리상의 염원을 기탁하기도 한다. 탁기물(托器物)은 기물(器物)을 통해 옛 성현들의 삶을 회상한다거나 자신의 이상과 심정을 밝히기도 한다. 이처럼 탁물우의(托物寓意)에 의한 회억(回憶)은 작자의 사상 견해, 그리고 옛 성현이나 조상 또는 이상적인 관리상 등을 일개 사물에 기탁해서 회억(回憶)하는 것을 말한다.

七曲登臨下白灘　칠곡에 올라보니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고
岩曉梵宇隔林看　우뚝 솟은 절간은 숲 너머로 보이네
披雲巨手今安在　구름 헤친 큰 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秋月精神水面寒　가을 달처럼 맑은 정신 수면처럼 차갑다[99]

위의 시는 박하담(朴河淡)의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 칠곡이다. 칠곡(七曲)은 백탄(白灘)이다. 백탄(白灘)이라는 것은 바로 하얀 여울이라는 뜻이다. 여울이 하얗다는 것은 주위의 돌들이 하얗기 때문이며 그 위로 흘러가는 물은 더욱더 맑아 아름다운 경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작은 티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청정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풀 건너에 우뚝 솟은 절은 백탄 왼쪽 산중턱에 있는 사리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100] 그리고 세상을 덮고 있는 구름을 걷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로인해 구름 속에 가려진 세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 달처럼 세상이 밝아 정신까지도 맑다고 하였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당시의 암담한 청치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밝은 달은 도(道)가 행해진 좋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작가는 운문구곡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탁산수(托山水)를 통해 자연처럼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지속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다.

夜渡撐將萬斛船　만곡선을 지탱하여 붙들고 들판 건너
細探花柳過前川　조심스레 꽃과 버들 찾아 앞 시내를 지나네

99) 朴河淡, 雲門九曲歌 七曲.
100)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p.316.

絲毫察盡源頭廓 작은 것을 잘 살피면 샘의 근원 탁트이니
泰宇澄明絶點烟 천하가 맑디맑아 구름 한 점 없네[101]

채지홍(蔡之洪) <근보주선생무이구곡시운(謹步朱先生武夷九曲詩韻)>의 일곡(一曲)에서 만곡선을 붙들고 들판을 건넌다는 것은 한없이 많고 넓은 학문의 세계에 대한 시작을 의미하며 꽃과 버들은 바로 사물을 말하는 물(物)인 것이고, 이를 찾는 다는 것은 곧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격(格)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꽃과 버들은 볼품없는 사물이지만 그 속에 자연의 이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궁구하여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이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격물치지가 되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고 밝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곧 성리학을 깨달은 주자모습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라 본다. 이처럼 꽃, 버들, 샘, 맑은 하늘을 통해 주자의 훌륭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자신도 주자처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하겠다는 다짐도 내포되었다고 본다.

一曲滄江有小船 일곡이라 창강에 작은배 떠있는데
發源南嶽作長川 남쪽 산에서 발원하여 긴 강을 이루었네
西歸錦麓因歸海 서쪽으로 금록을 돌아 바다로 흘러들어가
碧浪應通洙泗烟 푸른 물결 응당 수사의 안개와 통하네[102]

위의 시는 조헌(趙憲)의 율원구곡시(栗原九曲詩) 일곡(一曲)으로 창강(滄江)을 노래하고 있다. 창강의 맑은 물에 조그마한 배를 띠워놓고 놀면서 창강이 남쪽 산에서 발원하여 긴 강을 이루어 금록을 돌아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데 중국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들어오는 수사(洙泗), 즉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에 합쳐진다는 것이다.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는 모두 강이름으로 공자가 이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강학(講學)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까닭에 이후로는 공자의 도를 지칭한다거나 공자의 문하라는 뜻으로 전칭되었다. 따라서 조헌은 율원구곡의 물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공자를 생각하고 자신도 공자처럼 살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有潭淸且潔 운영담은 맑고 또한 깨끗하며
活水源頭來 흐르는 물은 발원지로부터 오네
白雲溶溶起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101) 蔡之洪, 謹步朱先生武夷九曲詩韻 一曲.
102)『重峯集』, 韓國文集叢刊 54, p.142.

其中影徘徊 연못가운데에 그림자가 일렁이네

譬彼君子心 비유하노니 저 군자의 마음같이
湛然無塵累 깊고 고요하며 티 없이 맑다
終日鏡面開 종일토록 거울처럼 맑아
水抱朝宗義 물이 조종의 의리를 감싸 안네[103]

위의 시는 운영담(雲影潭)의 물이 매우 맑아 하늘에 피어오르는 구름의 그림자까지도 연못에 비칠 정도며 군자의 마음같이 한 점 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자의 마음같이 한 점 티 없이 맑다고 한 것은 『장자』에 나오는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맑다(君子之交 淡若水)"를 인용한 것이다. 이는 곧 군자가 추구해야할 우도(友道)를 물이가지고 있는 속성에 비유한 것이다. 운영담의 맑은 물을 보면서 주자가 갖추어야할 덕목 중의 하나인 우도(友道)의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104] 그리고 또 하나의 우도(友道)는 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의리는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의리라고 할 수 있지만 곧 중국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詩에서 물이 조종의 의리를 감싸 안았다는 것은 화양동에 있는 만동묘를 감싸듯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중국의 신종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탁산수(托山水)를 통해 우도(友道)라던가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吁嗟彼盤石 아 저 넓고 평평한 바위
云胡名泣弓 어찌하여 읍궁이라 했던가?
孝廟之諱日 효종의 제삿날이면
有臣號蒼穹 신은 창공을 향해 울부짖었네.

年年是巖上 해마다 이 바위 위에는
淚痕磨不磷 눈물의 흔적 닳아 없어지지 않으니
侵晨慟哭語 새벽에 통곡하셨다는 말씀
可以泣鬼神 가이 귀신도 울었겠다[105]

103) 任相周, 漫興詠華陽九曲詩 一曲.
104) 李相周, 「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 『敎育科學硏究』 第13輯,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p.80.

이곡(二曲)은 입궁암(入窮暗)이다. 입궁(泣弓)이라는 것은 활을 보고 울었다는 뜻인데 여기서 활(弓)은 귀인의 죽음을 의미한다. 귀인이라 함은 곧 효종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다. 효종은 인조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청에 대한 치욕을 씻기 위해 이완(李浣)을 훈련대장에 임명하고 비밀리에 군대를 훈련시키고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을 등용하여 군비를 확충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자존을 회복하려 했으나 재위 10년 만에 죽자 북벌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자 송시열(宋時烈)은 효종의 제삿날인 5월 4일되면 이 바위 위에서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송시열(宋時烈)의 연군에 대한 정과 북벌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본다. 이는 탁산수(托山水)인 바위를 통해 우국충정이 강했던 송시열(宋時烈)을 기리고 있다.

維彼臥龍巖 오직 저 와룡암이
若捋乘風雲 풍운을 타고 오르는 것 같네
宛在水中央 완연히 물 가운데 있는데
蒼痕背成文 푸른 흔적 등에 무늬를 이루었네.

知是南陽翁 알겠도다 제갈공명이
變化爲此石 변해서 이 암석이 된 것을
平生興復意 평생 동안 부흥시키려는 뜻
蜿蜿如宿昔 꿈틀 꿈틀 예전 같도다.
臥龍巖

오곡(五曲)의 와룡암(臥龍巖)은 누어있는 용(龍)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본다. 이 바위는 물 가운에 있는데 거북의 무늬처럼 푸른 무늬가 있으며 살아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려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다고 묘사했다. 이 와룡(臥龍)바위로 인하여 중국의 와룡인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연상하게 된다. 와룡(臥龍)은 중국의 촉나라 재상이었던 제갈공명(諸葛孔明)이다. 그의 친구 서서(徐庶)가 유비(劉備)를 찾아가 제갈공명(諸葛孔明)은 때가오면 언제든지 하늘로 오를 것이라 하여 와룡(臥龍)이라고도 하는데 이 와룡(臥龍)이 죽어서 바위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105) 任相周, 漫興詠華陽九曲詩 二曲.

있다. 즉 와룡(臥龍)이라는 바위 이름을 보고 중국 촉나라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연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청나라를 정벌하려 했던 송시열(宋時烈)을 제갈공명(諸葛孔明)에 비유하였다고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는 청나라를 척결하고 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위인의 출현을 강력히 열망하고 있다[106]고 본다.

三曲은 어드메오 黃江이 여긔로다
洋洋 絃誦이 舊齋를 니어시니
至今의 秋月亭江이 어제론듯 ᄒᆞ여라[107]

삼곡(三曲)은 황강구곡도기(黃江九曲圖記)에 보면 황강 가에 한수재(寒水齋)가 있다고 하였는데[108] 중장에 나오는 구재(舊齋)가 바로 한수재(寒水齋)다. 한수재(寒水齋)는 권상하(權尙夏)가 학문을 닦으며 황강팔학사(黃江八學士)를 포함해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던 곳이다. '양양(洋洋) 현송(絃誦)'은 당시의 왕성한 학문과 유학의 풍토를, '어제론 듯 ᄒᆞ여라'는 회고의 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권상하는 돌아가셨지만 그가 기거했던 한수재(寒水齋)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그의 높은 학문과 뜻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곧 구재(舊齋)를 통해 권상하(權尙夏)의 도학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권상하(權尙夏)의 인품과 높은 학문을 회억(回憶)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八曲이 어드메오 凌江洞이 묽고깁희
棻書 四十年의 네어인 손이러니
아마도 一室雙亭의 못내즐겨 하노라

옥소(玉所)는 능강동에서 말년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곳은 백부 권상하(權尙夏)의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곳이다. 선생은 살아 계실 때에 능강의 여러 대(臺), 벽(壁), 천(川), 담(潭) 등에 대하여 이름을 지었는데, 권섭(權燮)은 여기에 '거연재'를 짓고

106) 이상주, 앞의 글, p.84.
107) 權燮, 黃江九曲歌 三曲.
108) 權燮, 앞의 책
其上野漸遠而山漸高 簇簇千峰之間 大村臨流 是三曲之黃江 先生之舊齋巍然 而寒水(齋)之扁三字煥然
그 위로 들판이 점점 멀어지고 산이 점점 멀어지고 높아져서 삐죽삐죽 솟은 여러 봉우리 사이에 큰 마을이 강에 임해있으니, 여기가 삼곡인 황강이다. 선생의 옛 서재가 우뚝 솟아 있고 '한수재'라는 편액 세 글자가 환하다.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는 만풍각을 지었다. 팔곡은 백부와의 추억이 어린 능강동에 집을 짓고 나서 기뻐하면서 선생을 기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했다.

五曲은　어대인고
駟山精舍　여기잇네　太祖太宗　駐蹕한대
淵勉兩翁　愛國思想　七分像에　나타나네
朝夕瞻拜　하난弟子　江漢秋陽　懷抱깊다[109]

오곡(五曲)은 이산정사(駟山精舍)를 노래하고 있다. 이 정사(精舍)는 진안의 유림들이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과 연재(淵齋) 송병준(宋秉濬)을 모시기 위해 발의하고, 또한 두 선생님을 기념하는 친친(親親) 현현(賢賢)의 계(契)가 조직되어 이 두 계(契)가 합동하여 지은 것이다.[110] 이 정사는 1925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후 고종이 비례물동 덕수궁주인(非禮勿動 德壽宮主人)이라는 어필(御筆)을 하사하였으며 오른 쪽 바위에는 주필태(駐蹕台)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허준이 쓴 마이동천(馬耳洞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져 있다. 그리고 태조와 태종이 이곳에서 주필한 곳[111]이기도 하여 매우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제자들이 강한추양(江漢秋陽)이라하여 강한(江寒)은 물이 많으니 씻기를 깨끗이 함을 말한 것이요 추양(秋陽)은 가을 햇볕은 건조하고 따가우니 햇볕을 쬐어 잘 말린다는 것을 말함이니 깨끗하게 빨아서 잘 말린 흰 비단이라는 뜻[112]으로 여기서는 연재(淵齋) 송병준(宋秉濬)과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인품이 빛나고 청렴결백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조석으로 참배하니 더욱 회포가 깊다고 하여 유서가 깊은 곳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어위야 興을쓴라 二曲으로 올나오니

---

109) 李道復, 駟山九曲歌 五曲
110)『厚山集』권10, 馬耳山記
於是詢謀于城中士友 爲淵翁修契曰親親 爲勉翁修契曰賢賢 賢賢親親其義一也 乃合兩契而爲一 又裒聚萬餘金助成是役
111) 위의 책
又按野史及鎭安舊誌云 我太祖微時興師南征 歷登此山 倚馬賦詩
『新增東國輿地勝覽』鎭安縣
太宗南幸次 山下遣官致祭 以形似賜名馬耳山
112)『孟子』滕文公章句 上
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尙已

東의는 浮碧이오 西희는 舟岩이라
두뫼희 마죠이셔 日月捍門 되단말가
水中의 누은바회 兄弟모양 긔이홀샤
周濂溪의 사던덴가 염바회 더욱귀타
赫赫홀샤 熊淵詞의 四先生의 忠節이여
嘉猷書塾 川上軒의 絃誦聲 들여셔라
孝婦烈女 예부터 잇건마는
쟝홀시고 孝烈兼全 申氏旌閭 쟝홀시고[113]

<석문정구곡도가(石門亭九曲棹歌)> 이곡(二曲)은 단암(舟岩)이다. 금천(錦川)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부벽이고 서쪽은 주암이다. 두 바위가 산처럼 솟아 마주하여 해와 달을 막는 것과 같은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돌이 물에 비친 모습을 형제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주돈이가 만년에 여산(廬山) 연화봉(蓮花峰) 아래의 염계(濂溪)에서 거처하였는데 그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고 아름다운경치에 감탄한다. 그리고 웅연사(熊淵詞)에 배향되어 있는 다의당(多義堂) 채귀하(蔡貴河), 인천군(仁川君) 채수(蔡壽), 졸재(拙齋) 채소권(蔡紹權), 우담(雩潭) 채득기(蔡得沂)[114] 등의 충절과 가유서숙(嘉猷書塾)에서 들려오는 거문고 소리와 책 읽는 소리를 연상하고, 신씨의 효열(孝烈)를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조 사림들은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자연에 인간의 감정을 의탁하여 조상·스승·위인 등을 회상하고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진지한 인생의 자세나 삶을 반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觀物求道의 聖域

철저한 성리학적 입장을 고수했던 조선조의 문학에서는 사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이 주도적이었다. 그러므로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인식의 객체인 사물을 보면서 경물을 읊되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작가의 도학적 관점에 의해서 재해석하게 된

113) 蔡瀗, 石門亭九曲棹歌 二曲.
114) 김문기, 『聞慶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한국학술정보, 2005, p.195.

다. 따라서 문학적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요인이 사물 그 자체라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적 주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학적 대상은 작가의 정신적 지향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즉 객관적 경물보다는 작가의 주관이 우선하는 것이다. 문학적 대상에 적용되는 주관의 성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집단적, 관습적 주관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 주관이다. 전자는 성리학의 전통 안에서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의미를 답습하는 것으로써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등이 선비의 절조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문학적 대상에 작가의 주관을 투영하되 전자의 경우처럼 도식적이지 않고 다소 자의적이라는 차이점[115]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관념이 문학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학적 대상은 관념을 전달,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물을 보면서 성리학적 정신을 찾고자 한다거나 도학의 구현에 기저를 두고 읊은 것을 관물구도(官物求道)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게 된 것은 당시에 유포되고 있었던 『무이지(武夷志)』나 『도가시주(櫂歌詩註)』 등의 비평서(批評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 내가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를 읽다가 '옥녀봉(玉女峰)이 꽃을 꽂는다.'는 구절에 이르러 저 시어의 뜻이 가지런하지 않아 의심을 하였는데 그것이 도의 계급(階級)을 비유하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렀다. 일곡(一曲)은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 방법을 모색하지만 그 말미암을 바를 잡지 못함을 이름이고, 다음은 노맥(路脈)을 이미 찾았으니 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물욕으로 인한 방해를 받아서 안 됨을 일렀고…<중략>…다음은 깊음을 다하고자 고지에 올랐으나 묘도(妙道)가 아님이 없는데 단지 사람이 자획(自畫)함을 근심하는 것을 읊었고 말곡(末曲)은 도의 극처는 일용인륜(日用人倫)의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상마(桑麻)의 상업(常業)과 같은 것이다. 혹 다시 소도(小道)의 볼만한 것을 구하려 달리 일단(一端)에 나아가는 것은 군자가 취할 바가 아니다.[116]

이처럼 조선조 주자학적 지식인의 경우 강호는 미적 대상이기 보다는 재도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강호를 주자학적 묘리(妙理)가 구현된 도체소우(道

115) 洪學姬, 「栗谷 李珥의 詩文學 硏究」, 梨花女子大學교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01, p.61.
116) 『星湖文集』 卷 56 書武夷九曲圖 199, p.533.
余讀武夷九曲詩 至玉女揷花之句 猶疑夫語意之不侔 及諦觀方覺其爲諭道階級也 一曲謂爲學之初 探討蹊徑莫適所由也 次謂旣尋路脈 一意精進 不爲物欲牽挽也…<中略>…次謂窮深極高 莫非妙道 只患人之自畫也 末曲謂道之極處 不離乎日用人倫之間 如桑麻之常業 有或更求小道之可觀 卽別是一端 而非君子之所取也

體所寓)로 여겼고, 이로 말미암아 강호는 도학의 종속물로 인식되었다.[117]그러나 강호와 주자학의 접맥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 옛 날 살림을 즐긴 자를 보건대 둘이 있다. 현허(玄虛)를 그리워하고 고상(高尙)을 섬겨 즐기는 자가 있고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길러서 즐기는 자가 있다. 전자를 따른다면 결신난륜(潔身亂倫)에 흘러 심한 즉 조수(鳥獸)와 무리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됨이 두렵고 후자를 따른다면 좋아하는 바는 조박(糟粕)뿐이오 그 전할 수 없는 묘(妙)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118]

강호에서 주자학적 오묘한 이치를 보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같은 분도 이처럼 어려워 할진대 하물며 대부분의 주자를 신봉하는 학자들에게는 쉽지가 않았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관물구도(官物求道)의 구곡가계 시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본다.

> 八曲雲林合復開　팔곡이라 운림이 닫혔다 다시 열리고
> 道人峰下小溪洄　도인봉 아래에는 작은 시내 흐르네
> 此閑佳景人知少　이 한가한 가경을 아는 사람 적으니
> ○○○翁伴詠來　(결) 늙은이 짝하여 읊조리며 오네[119]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1498)의 <운문구곡(雲門九曲)> 가운데 팔곡(八曲)은 도인봉이다. 우뚝 솟아있는 도인봉의 봉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면 도인이 말없이 앉아서 수련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신라시대 한 스님이 이곳에서 수련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 스님이 수련한 동굴이 있어서 전설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120] 이 봉우리 아래로 작은 시냇물이 돌아 흐르는 모습이 한가롭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볼 것이 없다 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곳에서 도인봉을 바라보며 자연을 완상할 뿐만 아니라 "도인봉혜의중(道人峰兮凝重) 유구물어우당(留舊物於虞唐) 앙주공지경행(仰周孔之景行) 일중천지기광(日中天之其光)"[121]라고 하여 순임금과 요

117)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硏究』,月印, 200, p.308.
118) 『退溪集』, 陶山雜詠記, 韓國文集叢刊 29, p.102.
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尙而樂者 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119) 『逍遙堂集』 卷一, 詩, 雲門九曲歌 八曲.
120) 김문기·강정서, 앞의 책, p.317.

임금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주공과 공자의 대도(大道)를 우러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요・순・주공・공자와 같은 도(道)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 것이라 본다.

有潭淸且潔　운영담은 맑고 또한 깨끗하며
活水源頭來　흐르는 물은 발원지로부터 오네
白雲溶溶起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其中影徘徊　연못가운데에 그림자가 일렁이네

湛然無塵累　깊고 고요하며 티 없이 맑다
終日鏡面開　종일토록 거울처럼 맑아
水抱朝宗義　물이 조종의 의리를 감싸 안네[122]

운영담의 물이 매우 맑아 하늘에 피어오르는 구름의 그림자까지도 연못에 비칠 정도며 군자의 마음같이 한 점 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자의 마음같이 한 점 티 없이 맑다고 한 것은 『장자』에 나오는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맑다(君子之交淡若水)"를 인용한 것이다. 이는 곧 군자가 추구해야할 우도(友道)를 물이가지고 있는 속성에 비유한 것이다. 운영담의 맑은 물을 보면서 주자가 갖추어야할 덕목중의 하나인 우도(友道)의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123] 그리고 또 하나의 우도(友道)는 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의리는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의리라고 할 수 있지만 곧 중국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시에서 물이 조종의 의리를 감싸 안았다는 것은 화양동에 있는 만동묘를 감싸듯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중국의 신종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靑海源頭撐小船　푸른 바다의 원두에서 작은 배 노 저으니
風和水靜幾多年　바람 자고 물결고요한 날 얼마나 되겠는가
渣塵淨洗無時已　渣塵을 씻어내는 일 한시도 그만두지 않으니

121) 『逍遙堂逸稿』 卷1 賦 <雲門賦>
도인봉이 의젓하고 정중하니
우당의 옛날 모습을 남겼네
주공과 공자의 대도를 우러르니
해가 하늘 가운데서 빛을 발하네
122) 任相周, 漫興詠華陽九曲詩 二曲.
123) 李相周, 「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 『敎育科學硏究』 第13輯,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p.80.

寶鏡眞珠獨自憐　寶鏡과 眞珠처럼 홀로 아름답구나[124]

위의 시는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의 <근보주선생무이구곡시운(謹步朱先生武夷九曲詩韻)>의 삼곡(三曲)으로 푸른 바다에 작은 배를 노 저어 가다보면 바람이 자주 불고 물결이 심하여 마음대로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망망대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호락(好樂) · 우환(憂患) 등과 같은 일 들이 많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호락(好樂) · 우환(憂患)과 같은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사진(渣塵)들을 한시도 그만두지 않으면 욕과 정이 생기게 되어 정심(正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자는 항상 정심을 통해 마음이 맑고 밝아 보경(寶鏡)이나 진주처럼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이다.

二曲亭亭玉女峯　이곡에 우뚝 솟은 옥녀봉
揷花臨水爲誰容　꽂 꽂고 물가에 임했으니 누구를 위한 단장인가
道人不復陽臺夢　도인은 다시는 양대몽을 꾸지 않고
興入前山翠幾重　신명나게 앞산에 드니 푸르름 몇 겹인가[125]

위의 시는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무이도가십수해(武夷櫂歌十首解)> 이곡(二曲)이다. 포저(浦渚)는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櫂歌)> 이곡(二曲)에 나오는 핵

124)『鳳巖集』, 謹步朱先生武夷九曲詩韻 三曲 韓國文集叢刊 205, p.223. 三曲.
125)『浦渚集』, 武夷櫂歌十首解, 韓國文集叢刊 85, p.408.
人苟以學道爲事 則當屛絶物欲之害於道者 而女色之害爲尤甚 故學道者尤深戒之也 此曲以爲學次第言之 則在旣學之後 而適其地有玉女峯 故取以爲喩 道人不復陽臺夢 言學道之人 不復留情於女色也 前山翠幾重 指前三曲至九曲也 言不復留情於女色 而其心之所慕悅 唯在於道也 蓋其志在高遠 故區區形氣之欲 不復爲累而能擺脫之也 夫男女 人之大欲存焉 苟不能制而唯欲是循焉 則將究於汚賤 至入於禽獸矣 其於學道 奚啻萬里之遠哉 故必絶此而後可以爲道矣 此詩於爲學之始 卽先以此爲戒 以其爲害最深而宜先屛絶之也(사람이 만약 도를 배우려고 결심하였다면 도에 해를 끼치는 물욕(物欲)을 근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색(女色)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도를 배우는 자로서는 더더욱 이것을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굽이를 학문하는 순서로 말하면 일단 학문의 길에 들어선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마침 그곳에 옥녀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해서 비유로 삼은 것이다. 도인불부양대몽(道人不復陽臺夢)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시는 여색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전산취기중(前山翠幾重)은 앞으로 나올 삼곡(三曲)부터 구곡(九曲)까지를 가리킨다. 이는 더 이상 여색에 미련을 두지 않음은 물론이요,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좋아하며 지향하는 것은 오직 도에 있다는 말이다. 그의 뜻이 드높고 원대하기 때문에, 형기(形氣)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구한 욕구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떨쳐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대저 남녀의 관계 속에는 인간의 크나큰 욕망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오직 욕망만을 따를 경우에는, 장차 더럽고 비천한 정욕만을 추구한 나머지 금수(禽獸)의 지경으로까지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도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만리 멀리 떨어지는 일만 될 뿐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근절해야만 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시가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먼저 경계한 것은, 이것이 해를 끼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만큼 우선 근절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심적인 외물(外物)인 옥녀봉(玉女峰)이 가진 물리는 계색(戒色)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이도가십수해(武夷櫂歌十首解)>에서도 도인(道人)은 옥녀봉(玉女峰)에서 초(楚)나라 회왕(懷王)과 무산선녀(巫山仙女)가 만났던 양대(陽臺夢)을 연상하고 이 같은 여색과 관계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뜻이 고원하여 푸르른 산처럼 구구한 형기지욕(形氣之欲)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도를 배우려고 결심하였다면 도에 해를 끼치는 물욕(物欲)을 근절해야 마땅하고 그중에서도 여색(女色)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원색지계(遠色之戒)를 강조하고 있다.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1738-1816)는 <무이도가(武夷櫂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남기지 않았으나 <武夷櫂歌>를 차운한 시를 남겨 자신의 인식을 대신하였다. 입재(立齋)가 <武夷櫂歌>를 차운시 <경차무이도가십수(敬次武夷櫂歌十首)>는 관물구도(官物求道)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九曲平原望豁然　　구곡의 평원은 눈앞이 환히 트이고
微茫遙峀又遙川　　먼 산과 먼 내가 아득하게 보인다
世間絶景饒隨處　　세상에 절경이 곳곳에 많으나
不是仙區在別天　　선구는 별천지에 있지 않다네[126]

입재(立齋)는 무이구곡의 제9곡이 극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평원이 전개되는 구곡의 공간은 이렇다고 할 경관이 전개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아득히 산과 내가 보이는 공간에 상도(想到)한 입재(立齋)는 세상의 절경은 곳곳에 많지만 선구(仙區)는 별천지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입재(立齋)가 지향하는 도학의 극처인 선구(仙區)는 세상의 절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원인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입재(立齋)에게 이곳을 버리고 새로운 경치를 찾아나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127] 이처럼 입재(立齋)는 관물구도(官物求道)라는 시인식을 바탕으로 <武夷櫂歌>의 차운시를 지었던 것이다.

九曲回頭更喟然 아홉 굽이라 고개를 돌려서 탄식한다
我心非爲好山川　이내 마음 산천을 좋아한 게 아니거니

126)『立齋集』, 韓國文集叢刊 253, p.121.
127) 姜正瑞,「朝鮮後期의 武夷櫂歌 詩認識」,『東方漢文學』第17輯, 1999, p.24.

源頭自有難言妙 샘물 근원 이곳에 형언 못할 묘리가 있어
捨此何須問別天 여기 이걸 놓아두고 다른 세계를 찾을소냐[128]

위의 시는『무흘구곡가(武屹九曲歌)』10수 가운데 마지막 시로 용추(龍湫)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일곡부터 마지막 구곡까지 거슬러 올라와 여정이 끝나는 순간에 한강(寒岡) 정구(鄭逑)는 자신이 산천을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자연이 아름답기는 해도 자신이 자연을 완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산천에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오묘한 이치란 바로 도심(道心)의 체득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노닐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않고 도학이라는 관념으로 자연을 관찰 하고 이를 통해 "여기 이걸 놓아두고 다른 세계를 찾을소냐"라고 하는 것처럼 도학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관물구도(官物求道)의 시인식을 가지고 창작한 구곡계 시가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것은 관물구도(官物求道)라는 의미를 서정시에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 본다.

128)『寒岡集』, 韓國文集叢刊 53, p.112.

4. 九曲歌系 詩歌의 文學史的 意義

조선조의 사림들은 초기에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에 불과하였으나 성종이 훈구세력의 일방적인 확대를 막기 위해 발탁한 김종직(金宗直)이 중앙정계로 진출하고 이어서 그의 제자들이 다수 관직에 등용됨에 따라 훈구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이루어 사림파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15세기 후반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으로 피비린내 나는 사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난세를 피해 산림에 은거하여 학문에 몰두하고 후진들을 교육하며 강호가도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원(書院)도 건립되기 시작한다. 그 후 서원(書院)이 발달하게 된 원인은 서원(書院) 자체가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세력으로부터 견제를 그만큼 덜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촌사회의 사림세력들에게는 구심점 역할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거와 서원의 건립으로 인하여 주자의 <武夷櫂歌>가 조선조 사림파 학자들에게 더욱 신봉의 계기가 되고, 그 결과 <武夷櫂歌>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조선에 퍼져 직접 구곡을 찾아 경영하며 주자의 은거형태를 그대로 본받아 정사(精舍)를 건립하기도 하고, 병풍 및 그림 등의 예술과도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원(書院)의 상량문에는 의례히 무이산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무이도가>를 모방한 시가가 수도 없이 지어졌으며, 조선의 구곡가류에 대한 문예비평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무이산을 처음으로 가본 사람은 조선조 선조 때의 사람인 노인(魯認 1566-1622)이라고 생각되며[129] 그의 자는 공식(公識)이고 호는 금계(錦溪)다. 노인(魯認)은 명종 21년 나주에서 태어났으며, 선조 15년에 진사과에 합격하여 선조 18년 빙고별제(氷庫別提)가 되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에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권율의 휘하에 들어가 왜군을 쫓아 의령 등지의 싸움에서 이겼으나 선조 30(1597)년 8월 남원성이 함락되었을 때 포로가 되었다가 선조 32(1599)년 3월 17일 중국으로 탈출하여 선조 34(1601)년 1월에 한양으로 돌아 왔는데 그의 문집『금계집(錦溪集)』권오(卷五) 부록(附錄) 유서애성룡기(柳西厓成龍記)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노인(魯認)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하였다.

---

129)신두환,「朝鮮 士人의 武夷櫂歌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大東漢文學』, 大東漢文學會, 2007, p.293.

중국의 절강성 사람인 임진혁을 만났는데 서로 친숙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공의 고민거리를 알고 공의 충절이 장대하다고 여겨 탈출시켜 돌려보내려고 백방으로 계책을 마련하였다.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탈출하여 중국의 복건성에 이르렀다. 노공은 자못 문장도 잘 했고 글씨도 잘 썼다. 곳곳에서 조선의 선비가 일본으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대우하는 것이 매우 부지런하였다. 유람할 만한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무이산의 제 오곡으로 들어가자 주자의 서원이 있었다. 서원에는 수백 명의 학도들이 있었는데 원장은 매일 여러 학생들을 거느리고 학문과 예의를 가르쳤다.[130]

이처럼 노인(魯認)은 무이산(武夷山)을 구경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 와서 무이구곡(武夷九曲)에 대한 풍광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아마 이때까지 조선에서는 주자의 武夷九曲을 직접 유람한 사람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주자의 <武夷櫂歌>를 모의한 구곡계 시가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복건성에 있는 무이구곡의 기암절경을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접해서 인식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 무이산(武夷山)의 정경과 유사한 산이 있더라도 구곡의 설정은 무이구곡에 영향을 받아 설정한 것이고, 경물은 실경에 바탕을 둔 이미지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강(寒江) 정구(鄭逑)의 <앙화주부자무이구곡시운십수(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채지홍(蔡之洪)의 <근보주선생무이구곡시운(謹步朱先生武夷九曲詩韻)>·퇴계(退溪)의 <한독무이지차구곡도가운십수(閒讀武夷志次九曲櫂歌韻十首)> 등은 주자(朱子)에 의해 인식된 공간인 무이산을 중심으로 읊은 관념 산수시인 데 비하여 율곡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는 석담구곡의 진경산수를 공간 감각으로 재구성한 시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한 경관의 모방이 아니라 주자의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인 '충담소산(沖澹簫散)', '한미청적(閒美淸適)', 청신쇄락(淸新灑落)' 등의 품격이 문예미학으로 확산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 산수시나 강호가도의 시가는 이러한 문예미학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갔다[131]고 볼 수 있다.

15세기 중엽 이후 구곡가계 시가는 대개 율곡(栗谷)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畿湖學派)와 퇴계(退溪)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嶺南學派)라는 두 계보가 형성되어

130) 魯認,『錦溪集』卷五 附錄 柳西厓成龍記, 韓國文集叢刊 71, p.224.
壬辰之亂 魯公認被虜入日本 久不得返 遇中原逝江人林公震號 因與相熟 其人愍公心事 壯公忠節 謀脫還百計遂自日本 逃至福建省 魯公頗能文善筆 處處聞朝鮮士子從日本逃來 待之甚勤 引與遊觀諸處 逶迤入武夷山第五曲有朱子書院 院中學徒數百餘 院長每日率諸生 講學行禮

131) 신두환, 위의 논문, p.240.

계승·발전하게 된다. 기호학파의 구곡가계 시가는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황해도(黃海道) 고산군(高山郡)에 있는 석담구곡(石潭九曲)의 경관을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로 읊은 것을 시초로 하여 송시열(宋時烈)이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암서재(巖棲齋)를 건립한 후에 율곡(栗谷)의 학통을 계승하고 서인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그의 주도아래 권상하(權尙夏)에게 맡겨서 아 홉 명이 각각 한 수씩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한역하여 <고산구곡시(孤山九曲詩)> 10수를 지었다. 율곡(栗谷)의 성리학은 그의 적전(嫡傳)으로 알려진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그의 아들 김집(金集 1574-1656)을 거쳐 송시열(1607-1689)에게 전승되었는데 송시열은 주자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율곡 성리학의 계승에 주력하면서 퇴계학파의 이론적 도전에 충실히 대응하는 등 전체적으로 율곡 성리학의 옹호에 심혈을 기울였다. 율곡의 성리학은 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을 거쳐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심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율곡 성리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곡운구곡가(谷雲九曲歌)>·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우이동구곡가(牛耳洞九曲歌)>·옥소(玉所) 권섭(權燮)의 구곡계 시조 작품인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성재(省齋) 류중교(柳重敎)의 구곡가계 가사 작품인 <옥계구곡가(玉溪九曲歌)>·후산(厚山) 이도복(李道復)의 <이산구곡가(頤山九曲歌)> 등이 있다. 기호학파의 사림들이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櫂歌)>에 대한 해석을 보면 대개 학문의 입도차제(入道次第)를 나타내는 조도시(造道詩)로 보았으나, 실제 구곡가계 시가의 창작에서는 인물기흥(因物起興)하는 서경적(敍景的)이라 할 수 있으며 사물에의 감흥을 통하여 존심양성(存心養性)하고자 하는 감흥존양(感興存養)의 시[132]를 주로 많이 썼다고 볼 수 있다.

영남학파의 구곡가계 시가는 경상우도에서 사림의 영수가 되었던 조식(曺植 1501-1572)과 깊은 교분을 형성했고, 당대 영남의 사림들과 폭넓게 교유했던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이 청도 운문산 아래의 눌연(訥淵) 위에 정자를 짓고 살면서 <무이도가(武夷櫂歌)>를 차운해서 지은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를 비롯해서 퇴계 이황이 『무이지(武夷志)』를 읽고 상상 속에서 무이구곡을 유람하며 그 감회를 읊은 <한거독무이지차구곡도가운십수(閒居讀武夷志次九曲櫂歌韻十首)>가 있으나 퇴계는 예안(禮安)에 살면서 1560년 명종 때에 농운정사(隴雲精舍)를 건립하고

132) 金文基,「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國語敎育硏究』23, 國語敎育學會, 1991, p.50.

구곡원림을 경영하면서도 구곡원림을 대상으로 구곡가를 짓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강(寒江) 정구(鄭逑)는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에게 성리학을 배웠는데 그가 지은 <무흘구곡(武屹九曲)>·수헌(壽軒) 이중경(李重慶)이 지은 구곡가계 시조 <오대어부가구곡(梧臺漁父歌九曲)>·효령대군의 후손인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이 지은 <성고구곡가(城皐九曲歌)>·훈수(塤叟) 정만양(鄭萬陽)의 <횡계구곡가(橫溪九曲歌)>·경암(敬巖) 이한응(李漢應)의 <춘양구곡가(春陽九曲歌)>·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의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櫂歌)> 등이 있다. 이러한 영남학파의 사림들은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개 산수시(山水詩)로 보았으나 실제 구곡가계 시가의 창작에 있어서는 사물의 관조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관물구도(觀物求道)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관념적인 조도시(造道詩)[133]를 많이 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호학파의 구곡가계 시가나 영남학파의 구곡가계 시가는 서정적 자아가 묘사하는 고도의 심미적 풍광 속에 도학적 심미의 세계를 응축해 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와 강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와 강호, 그리고 주자학적으로 시적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나 시의 주제 영역에 주자학적 제약을 가져와 그것을 축소시킨 경향도 없지 않았다[134]고 본다. 그리고 큰 테두리에서는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적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구곡가계 시가의 대체적인 경향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고 모든 구곡가계 시가의 작품들이 다 이렇게 뚜렷이 서경적·관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림파 문학과 <무이도가(武夷櫂歌)>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곡가계 시가는 16세기를 지나 17세기를 거쳐 18세기, 19세기까지 파급되어 가는데 이는 시와 강호와 주자학이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18세기 실학파 지식인들에게는<무이도가(武夷櫂歌)>가 과거 사림파 지식인들보다는 중시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연암집(燕巖集)』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 지금 무관(懋官)은 조선 사람이다. 산천과 기후가 중화(中華) 땅과는 다르고 언어와 풍속도 한당(漢唐)의 시대와 다르다. 그런데도 만약 작법을 중화에서 본뜨고 문체를 한당에서 답습한다면, 나는 작법이 고상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실로 비루해지고, 문체가 비슷하

133) 金文基, 위의 논문, p.49.
134)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硏究』, 月印, 2000, p.75.

면 할수록 그 표현이 더욱 거짓이 됨을 볼 뿐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구석진 나라이기는 하나 이 역시 천승(千乘)의 나라요, 신라와 고려가 비록 검박(儉薄)하기는 하나 민간에 아름다운 풍속이 많았으니, 그 방언을 문자로 적고 그 민요에다 운(韻)을 달면 자연히 문장이 되어 그 속에서 '참다운 이치 [眞機] '가 발현된다. 답습을 일삼지 않고 빌려 오지도 않으며, 차분히 현재에 임하여 눈앞의 삼라만상을 마주 대하니, 오직 이 시가 바로 그러하다.

…<중략>…

성인(聖人)이 중국에 다시 나서 열국의 국풍을 관찰한다면, 이 《영처고(嬰處稿)》를 상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남녀의 성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를 '조선의 국풍'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135]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학파 지식인의 문학관은 중국문학으로부터 조선문학의 독립을 주장[136]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암의 문학관으로 인해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가 실학파 문인들에게 점점 도외시된 듯하다. 그런데 당시 국왕인 정조(1752-1800)는 <무이도가(武夷櫂歌)>가 도를 암유한 터이니 체(體)와 용(用)과 현미지묘(顯微之妙)를 징험코자 하면 <무이도가(武夷櫂歌)>를 봐야 한다고 예찬하고 있다.

도가의 여러 시가 도를 비유했다면 널리 참고하고 해박하게 인증하고 간략하게 적고 주해하여…<중략>…체와 용과 현과 미의 묘리를 징험코자하면 도가를 보아야 한다.[137]

위와 같은 정조의 논리는 18세기 실학자들에게 <무이도가(武夷櫂歌)>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조선 후기로 접어들수록 <무이도가(武夷櫂歌)>가 도학적으로 고착화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구곡가계 시가는 성리학을 인식기반으로 삼아 조선조 말엽까지 지속과 변모를 거듭하다가 개화기 때에 다소의 잔영을 남기면서[138] 일제시대를 전후하여 유학이 쇠퇴됨

---

135) 『燕巖集』 卷之七 別集, 嬰處稿序, 韓國文集叢刊 252, p.110.
今懋官朝鮮人也 山川風氣地異中華 言語謠俗世非漢唐 若乃效法於中華 襲體於漢唐 則吾徒見其法益高而意實卑 體益似而言益僞耳 左海雖僻國 亦千乘 羅麗雖儉 民多美俗 則字其方言 韻其民謠 自然成章 眞機發現 不事沿襲 無相假貸 從容現在 卽事森羅 惟此詩爲然…<中略>…若使聖人者 作於諸夏 而觀風於列國也 攷諸嬰處之稿 而三韓之鳥獸艸木多識其名矣 貊男濟婦之性情 可以觀矣 雖謂朝鮮之風可也

136)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硏究』, 月印, 2000, p.82.

137) 『群書標記』, 雅誦 八卷, 新韓書林, 1970, p.197.
櫂歌諸詩之喩道 則廣參博證略綴註解…<中略>…欲驗其體用顯微之妙 則覽乎櫂歌

으로써 시대적인 요구가 없어지자 막을 내리게 되었다[139]고 본다.

한편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에 대한 미학비평을 보면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은 "그 뜻을 붙인 것과 그 말을 펼친 것이 청고 화순하고 충담 쇄락하며 곧바로 일어나는 흥이 욕기의 기상과 같이 쾌활하다."[140]고 하여 그 용어들을 보면 청고화후(淸高和厚)·충담쇄락(沖澹灑落)·욕기기상(浴沂氣象)이라 비평을 하였고,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충담소산(沖澹蕭散)·한미청적(閒美淸適)·청신쇄락(淸新灑落)[141]이라고 비평함으로 인해 이러한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이 조선 중기 이후 강호시가의 문예미학으로 수용되어 확산되고 발전되면서 성리학적 사유방식이 결합되기도 한다. 대개 고려시대의 시어 나타난 미의식은 지(志)·의(意)·기(氣)·풍(風)·골(骨) 등의 풍격(風格)이 주를 이루지만 주자의 자연미는 조선조 사림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끼쳐 대개 평담(平淡)·간이(簡易)·충담(沖澹)·소산(蕭散)·청진(淸眞)·고담(枯淡) 등의 미의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142]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리학적 문학론과 주자의 <武夷櫂歌>는 조선조 사림파 문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武夷櫂歌>를 향수하는 과정에서 화운(和韻)을 한다거나 모방을 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武夷櫂歌>에 대한 비평을 통해 조선조 시에 대한 비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시가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본다.

---

138) 大韓每日申報 "社會燈"란에 실린 開化歌辭 중에 峨洋九疊(706호, 1908, 1, 11)과 九曲櫂歌(708호, 1908, 1, 14)는 九曲歌의 형식을 취하여 시사를 개탄하고 있다.

139)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國語敎育硏究』 23, 慶北大學校, 1991, p.52.

140) 『高峰全集』 卷一, 別紙武夷櫂歌和韻.
其意之所寓 其言之所宣 固皆淸高和厚 沖澹灑落 直與浴沂氣象 同其快活矣

141) 『栗谷全書』 拾遺 卷四 雜著 一, 精言妙選總敍, 韓國文集叢刊 45, p.553.
元字集曰 此集所選 主於沖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 深有妙趣…<中略>…亨字集曰 此集所選 主於閒美淸適 從容自得 出於寓興…<中略>…利字集曰 此集所選 主於淸新灑落 蟬蛻風露 似不出於煙火食之口

142) 신두환, 「朝鮮 士人의 武夷櫂歌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大東漢文』, 대동한문학회, 2007, p.246.

III. 結論

조선조의 주자학은 15-16세기를 통하여 보면 관학으로는 별로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재야의 사림 속에서 사학(私學)으로 크게 발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림은 선조 시대 이후에 오면 재야의 사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계의 관료로 진출하게 되어서 관료와 사림은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갖게 되며, 정치적으로도 같은 지향을 갖게 됨으로써 주자의 성리학은 이들 계층의 세계상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보겠다. 그런데 조선조의 사림들은 주자학과 강호, 그리고 문학을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여겼으며, 특히 주자의 <武夷櫂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자가 은거하며 강학했던 무이구곡을 가장 이상적인 자연이라 생각하고 무이산을 직접 가볼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무이산의 풍물과 역사, 무이산의 시문이 수록된 『무이지(武夷志)』를 탐독하면서 주자의 인격과 학문에 심취하여 인간 성정의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무이구곡과 <무이도가(武夷櫂歌)>를 본따서 각종 구곡원림을 경영하면서 다양한 구곡가계 시가를 지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곡가계 시가에 대한 양상과 변이, 그리고 미의식 및 문학사적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곡가계 시가의 양상과 변이는 조선 전기의 구곡가계 시가의 양상과 조선 후기의 구곡가계 시가의 변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기는 주자의 <무이구곡>에 대한 수용 양상을 15세기 여러 문인들의 구곡가계 시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격적인 구곡가계 시가 문학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림파들에 의해 성리학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주자의 <武夷櫂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본다. 그리하여 산림에 은거해서 이들은 朱子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를 감상하면서부터 무이구곡이 성리학자들의 심상공간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전기의 구곡가계 시가에는 朱子에 대한 흠모와 동경이 강하게 나타나며 <武夷櫂歌>에 대한 인식은 입도차제(入道次第)로 인식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물기흥(因物起興)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武夷櫂歌>를 조도시(造道詩)로 보느냐 서경시(敍景詩)로 보느냐 하는 대립이다. 인식의 대립에 가장 대표적인 논자로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은 인물기흥적(因物起興的) 관점으로 하서 김

인후(金麟厚)는 입도차제적(入道次第的) 관점으로 보았던 것이다. 인물기흥적(因物起興的) 관점의 작품으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차구곡도가운(次九曲櫂歌韻)>·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의 <앙화무이구곡시운)仰和武夷九曲詩韻> 등과 같은 것이 있으며 입도차제적(入道次第的) 관점의 작품으로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무이산부(武夷山賦)>가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는 대부분 朱子에 대한 흠모를 하면서 朱子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자발적인 은거생활에서부터 구곡의 설정과 경영은 시작된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는 당쟁으로 인한 사림의 관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외부적 정치 상황에 따라 관계를 떠나 자연 속에 은둔하여 침잠성리(沈潛性理)하는 학문에 전념하면서부터 많은 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게 된다. 후기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결국 구곡가계 시가의 작품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조 초기보다 주자에 대한 동경이나 숭앙이 작품에도 약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17세기에 성리학계 내부에서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면서부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자 주자의 성리학을 신봉하던 사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치적 성향의 작품을 쓰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계 친족 중심의 종족 질서 확립이나 사림들의 숭조정신 등 다양한 내용의 작품들도 쓰게 된다. 구곡2가계 시가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초기에는 주로 7언 절구의 형식을 사용하나, 후기로 오면서 5언 절구의 형식으로 쓰거나 또는 7언 절구 내지 5언 절구로 쓰되 연시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 외에 시조나 가사형태를 취한 구곡시가가 나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문학적 표현법은 탁물우의(托物寓意)라든가 선경후정(前景後情)의 표현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곡을 선정한 사림들은 대부분 주자의 심오한 학문자세와 고결한 인품을 숭앙하고 자신들도 이를 실천하여 학문과 교육에도 정진하려고 하였으며, 구곡을 현실 속에 실존하는 신선의 세계로 갈구하여 속세의 번민과 갈등에서 초탈하려 했거나 신선연(神仙然)하며 유유자적하려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처럼 구곡가계 시가는 성리학적 이념과 산수를 통한 흥취를 조화롭게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구곡가계 시가의 미의식은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우흥(寓興), 탁물우의(托物寓意)에 의한 회억(回憶), 관물구도(觀物求道)에의 성역(聖域)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우흥(寓興)은 작가가 접물(接物)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며, 그러한 감정을 시가문학의 형식을 통해 형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물기흥이란 문예심리학적 측면에서 강호에 대한 안온(安穩)과 소요(逍遙)를 누리며 무욕(無

慾) 속에서 주체의 자각에 의한 정감이 시가의 서정성으로 승화되는 것을 말한다. 탁물우의(托物寓意)에 의한 회억(回憶)은 작자의 사상 견해, 그리고 옛 성현이나 조상 또는 이상적인 관리상 등을 일개 사물에 기탁해서 회억(回憶)하는 것을 말한다. 관물구도(官物求道)의 성역(聖域)은 사물을 보면서 성리학적 정신을 찾고자 한다거나 도학의 구현에 기저를 두고 읊은 것을 관물구도(官物求道)의 성역(聖域)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게 된 것은 당시에 유포되고 있었던 『무이지(武夷志)』나 『도가시주(櫂歌詩註)』 등의 비평서(批評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3, 문학사적 의의는 15세기 중엽 이후 구곡가계 시가는 대개 율곡(栗谷)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와 퇴계(退溪)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라는 두 계보가 형성되어 계승·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기호학파의 문학과 영남학파의 구곡가계 시가는 서정적 자아가 묘사하는 고도의 심미적 풍광 속에 도학적 심미의 세계를 응축해 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와 강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와 강호, 그리고 주자학적으로 시적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나 시의 주제 영역에 주자학적 제약을 가져와 그것을 축소시킨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큰 테두리에서는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적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구곡가계 시가의 대체적인 경향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고 모든 구곡가계 시가의 작품들이 다 뚜렷이 서경적·관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림파 문학과 <武夷櫂歌>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곡가계 시가는 16세기를 지나 17세기를 거쳐 18세기, 19세기까지 파급되어 가는데 이는 시와 강호와 주자학이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편 주자의 <武夷櫂歌>에 대한 미학비평을 보면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은 청고화후(淸高和厚)·충담쇄락(沖澹灑落)·욕기기상(浴沂氣象)이라 비평을 하였고,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충담소산(沖澹蕭散)·한미청적(閒美淸適)·청신쇄락(淸新灑落)이라고 비평함으로 인해 이러한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이 조선 중기 이후 강호시가의 문예미학으로 수용되어 확산되고 발전되면서 성리학적 사유방식이 결합되기도 한다. 대개 고려시대의 시어 나타난 미의식은 지(志)·의(意)·기(氣)·풍(風)·골(骨) 등의 풍격(風格)이 주를 이루지만 주자(朱子)의 자연미는 조선조 사림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끼쳐 대개 평담(平淡)·간이(簡易)·충담(沖澹)·소산(蕭散)·청진(淸眞)·고담(枯淡) 등의 미의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본다. 성리학적 문학론과 朱子의 <武夷櫂歌>는 조선조 사림파 문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武夷櫂歌>를 향수하는 과정에서 화운(和韻)을 한다거나 모방을 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武夷櫂歌>에 대한 비평을 통해 조선조 시에 대한 비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시가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본다.

參考文獻

1. 원전자료

權近,『陽村集』, 韓國文集叢刊 7, 민족문화추진회.
權燮,『玉所集』다운샘, 2008, 영인본.
金壽增,『谷雲集』, 고려대학교소장, 영인본.
金宗直,『佔畢齋集』, 韓國文集叢刊 12, 민족문화추진회.
柳重敎,『省齋集』, 韓國文集叢刊 323, 민족문화추진회.
朴河淡,『逍遙堂先生逸稿』, 韓國歷代文集叢書 1393, 경인문화사.
徐居正,『四佳集』, 韓國文集叢刊 10, 민족문화추진회.
成三問,『成謹甫集』, 韓國文集叢刊 10 , 민족문화추진회.
宋時烈,『松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11, 민족문화추진회.
李家淳,『霞溪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1317, 경인문화사.
李珥,『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45, 민족문화추진회.
李滉,『退溪集』, 韓國文集叢刊30, 민족문화추진회.
鄭逑,『寒江集』, 韓國文集叢刊 53, 민족문화추진회.
趙翼,『浦渚集』, 韓國文集叢刊 86, 민족문화추진회.
『孟子』학민문화사간행
『論語』학민문화사 간행
http://sillok.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 검색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hitt://www.itkc.or.kr. 韓國文集叢刊 검색시스템, 한국고전번역원.

2. 단행본

김문기,『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 2005.
김문기 · 강정서,『경북의 구곡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김병국,『고전시가의 품격 미학』, 월인, 2009.
박요순,『속소 권섭의 시가연구』, 탐구당, 1990.

孫五圭, 『山水文學의 硏究』,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신영민,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이민홍, 『증보 사림파문학의 연구』, 월인, 2000.
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이상주,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2007.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2, 知識産業社, 1989.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박이정, 2003.
———,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최진원, 『고전시가의 미학』, 월인, 200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역락, 2006.

3. 논문

강정서, 「구곡가계 시가에 나타난 공간이미지와 지향의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 석사논문, 1993.
강정섭, 「석문정구곡도가의 양식사적 고찰」, 『어문연구』 29, 어문학연구회, 1997.
길진숙, 「이이의 속악 인식과 고산구곡가」, 『한국문학연구』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 1991.
———, 「도산구곡시의 작품 현황과 창작 경향」, 『退溪學과 韓國文化』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퇴계구곡과 퇴계구곡시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4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김태환, 「율곡 정언묘선 풍격의 충담·한미와 청신」, 『도남학보』 18, 도남학회, 2000.
류재영, 「이산구곡가에 대하여」,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논총』, 한실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7.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국어국문과, 2002.
_____,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權燮)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2.
_____, 「石門亭詩歌壇의 성립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005.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박청인, 김정태, 「곡운구곡의 형성배경과 경관의 의미」, 한경대학교논문집』 제33집, 2002.
손오규, 「산수문학에서의 산수와 산수미」, 『인문학연구』 4,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 「산수문학에서의 인물기흥」, 『반교어문연구』 11, 반교어문학회, 2008.
유준영, 「구곡도의 발생과 기능에 대하여」, 『미술사학연구』 151, 한국미술사학회, 1981.
윤정화, 「玉所 權燮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지』 35, 문창어문학회, 1998.
윤진영, 「寒岡 鄭逑의 유거 공간과 무흘구곡도」,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이기현, 「고산구곡가의 한역악부에 대한 일고찰」, 『한국학논집』 2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_____,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지향」, 『한양어문』 1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3.
이상주, 「구곡문화 관광특구와 그 구곡 설정자들의 학맥」, 『중원문화논총』 9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 「구곡시의 전통과 화양구곡시」, 『교육과학연구』 제13집,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 「盧性度와 「煙霞九曲歌」, 『한문학회』, 우리한문학회, 2001.
이지형, 「凝窩 李源祚의 「布川九曲次武夷櫂歌」에 對하여」, 『죽부이지형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간행위원회』, 태학사, 1996.
장정수,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 및 구성 방식」, 『시조학 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전일환, 「이산구곡가의 가치구명」, 『한국시가 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정요일, 「문이재도론의 이해」, 『한국한문학 연구』 6, 한국한문학회, 1982.

정재철,「정언묘선의 풍격 연구」,『한국한문학 연구』29, 한국한문학회, 2001.
조성덕,「武夷櫂歌」의 受容과 變容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4.
조지형,「17~18世紀 九曲歌 系列 詩歌文學의 展開 樣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최호석,「梧臺漁父歌를 통해 본 17세기 강호시가의 한 양상」, 『어문논집』36, 안암어문학회, 1997.
허황옥,「고전시가작품에 접근하는 교육적 관점」,『시학론총』16, 한국시조학회, 2000.
황진성,「고산구곡가 연구」,『동악언문논집』1, 동악어문학회, 1965.